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157호

세속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내면의 집중을 흩뜨리지 말라

칭하이 무상사/ 1997. 12. 27. 미국 워싱턴 D.C. 국제 선사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10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염주, 돌, 향, 초와 같은 보조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의 외적 모습에 끌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름답긴 하지만 우리 주의를 끌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가능한 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신이 우리를 위해 창조한 모든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지만 그 '때'를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명상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내면으로 더 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집중만이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과 평화를 주기 때문이지요.

물론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한 후에는 일을 하거나 집중해서 꽃을 보거나 하면서도 삼매에 들어 내면의 실제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다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지를 얻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러니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신을 기억하기 위해 외부의 모든 유혹과 의식을 끊어버리고 보조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까닭은 우리가 이미 바깥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있고 주의력을 뺏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능한 항상 내면에 집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고 집중하기 위해 산으로 가거나 혼자 지내려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아주 가끔 아름다운 노래나 훌륭한 연주도 일단 듣고 좋아하게 되면 계속 귓전에서 맴돕니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고아하고 여러분을 보다 영적이게 만들거나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준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나 시가 너무 슬프고 우울하다면 지워버리려고 해도 여러분은 계속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건 항상 마음에서 안 떨어지기 때문이지요. 더군다나 그 가수나 낭송가의 목소리가 아름답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마음 속 깊이 각인되기 때문에 없애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불 아니라 '오백 이름'도 잊어버립니다.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지요! 그러다 어느 한 순간에 '세상에 내가 뭘 하는 거지?' 하고는 그것을 머리 속에서 떨쳐버리고 오불을 외우겠지요. 그것도 좋습니다.

외부의 음악이나 연극, 영화 등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산란하게 만들어 낮은 경지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러니 방황하는 마음을 통제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신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은 괜찮았다가 내일은 나빠지고 점심때는 좋았다가 저녁엔 비참해집니다. 여러분의 명상은 항상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매일 명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전쟁에서 질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에서 지고, 에고에 지며, 환상의 세계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손을 듭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직함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CONTENTS 차 례

앞표지 안 스승님 말씀
세속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내면의 집중을 흩뜨리지 말라

2 다채로운 이벤트
멕시코/ 미국/ 캐나다/ 인도/ 호주/ 대한미국/ 카메룬/
포모사

8 행사 메모

15 제일선에서
국경 없는 신의 사랑: 수행으로 지구의 의식을 고양시키자
-2005년 타이베이 국제 도서전 소식

18/ 33 감로법어
영적인 성장에 집중해 완전한 존재가 되라/
영적, 물질적으로 세상에 봉사하자

19 스승님의 농담
겁낼 필요 없소!!/ 머리를 기르는 대가

20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깨달은 자만이 신을 알고 인류를 이롭게 할 수 있다

23/ 40/ 68 지혜어록
고등의 변신술/ 최상의 치료법/ 도로 젊어지는 법

24 시
당신과 인연을 맺으며

25 신기한 감응
기적의 99퍼센트/ 무소부재한 스승님의 돌보심/
스승님의 힘이 두 어머니를 천도시키다

28 골라 뽑은 수행문답
내면의 체험을 강요하지 말라/
기대는 수행 진보를 방해한다/ 인류가 영적으로
각성됐을 때 지구는 최고의 상태를 유지한다/
먼저 내면의 평화를 구하면 세계 평화가 온다/
스승님의 치유는 신의 축복이다/
매일 매 순간 영적인 보물을 쌓으라/
각 영혼은 자신의 여정을 결정한다

33 사제지간의 편지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로부터 얻은 무한한 이로움

34/ 36 어둠 속의 등대
길 잃은 양들이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다/
역경이 스승을 찾는 완벽한 계기가 되다

35/ 46/ 54 감사 편지
어울락/ 코스타리카/ 스리랑카

37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인욕은 성인의 품성

41 사랑의 실천
한국/ 코스타리카/ 스리랑카/
2005년 1월에서 2월까지 포모사 내 사랑의 활동 지출 일람표

55/ 61/ 66 매체 보도
스리랑카 데일리뉴스/ 보호 신발을 신게 된 영국의
경찰견들/ 상어의 공격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한 돌고래

58/ 60 사랑의 바다에서 온 물방울
스승님,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 주십시오/
봉순이 이야기

62/ 64 과학과 영성
과학자들, '동물도 감정이 있다' 고 말하다/
개의 사랑과 지능

63/ 뒤표지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시집/ CD/ MP3

67 유용한 정보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발휘해 훌륭한 수행자가 되도록 하라

69 관음 웹사이트

70 전세계 연락처

출판일자 : 2005. 8. 6.
설립년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31) 772-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kpt@yahoo.co.kr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57호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소식

스승님의 안배로 완벽한 강연회가 되다

텍스코코 뉴스그룹

[텍스코코] 2005년 2월 4일 텍스코코 센터 동수들은 스승님의 신성한 가르침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텍스코코 사회복지센터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회를 준비하는 동안 많은 장애가 있긴 했지만 스승님의 무한한 축복과 사랑의 보살핌으로 강연회는 완벽하게 끝을 맺었다.

예를 들어 시의 법 규정상 시내에서는 전단지와 포스터 배포가 금지되어 있어서 동수들은 규정에 따라 변두리로 나가 강연 정보를 알려야만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을 찾는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다. 그 중 한 노부인은 전단지를 읽고 젊은이들이 신께 가까이 다가가고 큰 이로움을 얻을 수 있는 관음법문과 같은 고귀한 법문을 알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 전단지를 나누어 주던 한 사저는 스쿠터를 몰던 중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그녀는 중상을 입을 뻔 했지만 약간의 발목 부상만 입고는 계속해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다. 저녁 무렵 사저는 발목에 심한 통증을 느꼈지만 그날 밤 스승님께서 발목을 치료해 주시는 꿈을 꾸었고, 다음 날엔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

기대하던 강연회 날, 강연장은 참석자로 가득 찼다. 스승님의 비디오가 상영되자 모든 청중들은 주의 깊게 경청했고 강렬한 스승님의 사랑 속에 모두들 엄청난 기쁨과 행복을 체험했다.

텍스코코 지역은 육류 소비량이 아주 많기 때문에 동수들은 채식에 관한 정보를 열심히 준비했다. 동수들이 채식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자 청중들은 채식을 배우는 데 아주 큰 관심을 보였다. 동수들이 채식을 하는 육체적·영적인 기본 개념들을 설명하자 강연회에 참가했던 한 여성은 한번은 트럭에 가득 실린 돼지들이 운반되는 것을 보았는데 돼지들이 살려 달라며 울부짖는 것을 듣고선 다시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다며 청중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말했다. 그녀는 생선은 계속 먹어 왔지만 완전 채식의 이로움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다시는 생선을 먹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강연회가 끝나고 30명이 방편법을 배웠으며 대부분 좋은 체험을 했다. 한 방편자는 허리 통증과 피로가 없어졌고 다른 이들은 모든 중생에 대한 스승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느꼈다.

2월 4일 비디오 강연회를 통해 신의 기적과 사랑을 목격한 텍스코코 동수들은 스승님께서 우리를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오셨다는 희소식을 계속해서 전하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동수들은 자기 고장을 위해 겸허하게 봉사할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알게 모르게 세상을 위해 일하시는 스승님의 노고에 대해선 그 어떤 감사의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참석자들이 방편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꽃의 도시가 영성의 빛으로 빛나다

베라크루즈 뉴스그룹

[잘라파] 멕시코 베라크루즈(Veracruz) 주의 주도(州都)인 잘라파(Xalapa)는 도시 전체에 수많은 공원과 정원, 나무가 우거져 있어 꽃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베라크루즈 주의 주요 행정기관과 문화 및 교육 기관이 모여 있으며 마음이 따뜻한 시민들은 문화와 영성 모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05년 2월 18일 금요일, 동수들은 멕시코의 타 도시에서 온 동수들의 도움으로 이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연장 중 하나인 주립극장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해 잘라파의 주민들에게 사랑하는 스승님의 가르침과 관음법문을 소개했다.

강연 당일 많은 열성적인 청중들이 1시간 일찍 강연장에 도착했고 예정시간 몇 분 뒤에는 거의 만원을 이루었다. 비디오 강연 동안 스승님의 축복이 가득했으며 강연 후 참석자의 2/3 이상이 방편법을 배웠고 그 중 일부는 내면의 체험을 했다. 한 참석자는 빛으로 화현한 화신 스승님을 보기도 했다. 동수들은 새로운 구도자들에게 잘라파의 방편자 단체명상에 참석도록 권유했으며 이로 인해 몇 명이 입문을 신청하게 되었다.

쿠에레타로에서 강력한 성령의 불길이 일다

멕시코 뉴스그룹

[쿠에레타로] 2005년 3월 11일 멕시코 쿠에레타로 주민들은 주립문화센터에서 중생을 진정한 고향으로 이끄는 법문을 알려주는 공개 비디오 강연회에 참석했다.

강연회에 앞서 멕시코시티와 텍스코코의 동수들은 이 지역 방편자들을 도와 스승님의 포스터를 붙이고 수천 장의 전단지를 돌렸으며 여러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강연회를 알렸다. 이 행사 소식은 TV를 통해서도 방송이 되었는데 동수들이 지역 방송국의 담당자와 접촉했을 때 그는 놀랄 만큼 협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비디오 공개 강연회를 통해 스승님의 가르침과 관음법문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려 한다고 하자 담당자는 즉시 다음날

아침으로 인터뷰 일정을 잡아 주었다.

또한 강연회 하루 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동수들이 전단지를 다 돌리고 센터로 돌아가고 있을 때 한 사형이 "저길 봐, 잔디에 불이 붙었어!"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곳에 가까이 가자 놀랍게도 불은 없고 관음법문 전단지 한 장만이 잔디 위에 놓여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축복 받은 전단지를 수거하면서 스승님의 가르침 속에 담긴 엄청난 힘이 성령의 불로 화현한 것임을 깨달았다. 이처럼 관음법문에 관련된 자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스러움이 나타난다!

강연이 있던 특별한 날, 진리에 목마른 모든 연령의 구도자들이 강연장을 가득 메웠다. 시작 몇 분 전, 한 지역 신문기자가 몇몇 동수들과 관음법문에 관해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찍었다. 이후 한 방편자와 한 사저가 자신들의 체험을 청중들에게 들려주었다. 자리에 앉아 있던 방편자의 어머니는 어린 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 신실함에 감동을 받아 울음을 터뜨렸다. 다음으로는 60세의 사저가 체험을 발표했는데, 모두들 그 사저의 젊음과 아름다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에 그녀는 "채식과 명상 수행은 영혼에 이로우며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라고 설명했다.

스승님의 강연 DVD를 시청하는 동안 청중들 모두 감동을 받았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심도 깊은 영적 질문들을 했다. 강연 후, 참가자 대부분이 남아서 방편법을 배웠으며 내면의 빛과 과거의 스승들, 그리고 칭하이 스승님에 관한 훌륭한 체험을 했다. 강연회가 끝나고도 몇 명은 계속 남아서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더 배우고 수행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물었다.

쿠에레타로 비디오 강연회에 참석한 멕시코 동수들은 모두 지혜를 키우고 영적으로 빠르게 진보할 수 있었으며, 끝없는 사랑의 바다에서 중생을 피안으로 인도할 배가 될 기회를 주신 신께 깊은 감사를 드렸다.

미국 텍사스 소식

즐거운 음력 설
- 스승님의 선물을 전세계와 나누다

휴스턴 뉴스그룹

[휴스턴] 2005년 2월 2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휴스턴 센터 동수들은 휴스턴 중심가의 릴라이언트 센터(Reliant Center)에서 열린 다채로운 음력 설 축제에 참석했다. 이 센터는 대형 콘서트와 공연, 다른 볼거리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축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음력 설을 축하했다. 날씨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지만 스승님의 축복으로 행사 당일은 화창하게 개고 햇빛이 밝게 빛났다.

휴스턴 센터의 부스는 노랑, 파랑, 빨강의 굵은 글씨로 쓰여진 스승님의 명호로 밝게 장식되었고, 동수들은 행사 기간 동안 관음 명상법을 방문객들에게 소개하며 스승님의 영적 가르침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었다. 방문객들은 비디오 강연을 보기도 하고 책을 읽으며

의미 있는 질문도 하면서 동수들의 생각과 체험, 정보를 함께 나누었다. 몇몇 방문객들은 조용히 빈 구석을 찾아 스승님의 글을 읽으며 아름다운 말씀을 통해 많은 축복을 받았다. 몇몇 방문객은 이미 칭하이 스승님을 알고 있었고, 이 세상에 현존하시며 중생을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해 스승님께 깊이 감사드렸다.

동수들이 제공한 풍성한 채식을 맛본 방문객들은 채식음식이 몸에도 좋고 영양도 풍부할 뿐더러 정말 맛있었다고 말했다.

휴스턴에서 열린 음력 설 행사에 참여한 동수들은 함께 일하며 스승님의 선물을 전세계 사람들과 나누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긍심을 느끼고 큰 은총에 잠겼다. 또한 휴스턴 동수들은 칭하이데이를 맞아 스승님의 축복 속에서 2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선이 행사를 개최해 인류 역사의 변화에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명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식

닭띠 해의 새해 다짐

새크라멘토 뉴스그룹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 남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농촌 마을인 스톡턴(Stockton)에 사는 어울락인들은 매년 테트(Tet-어울락 새해)를 맞아 축제를 열고 함께 즐긴다. 닭띠 해인 올해, 이 어울락인들의 초청을 받아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2005년 2월 12일 축제에 참여해 부스를 차렸다. 이번 행사의 주최자는 관음 TV와 라디오 방송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미 우리 협회를 잘 알고 있었다.

새크라멘토와 샌프란시스코 센터 동수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관음법문의 영적 이로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다양한 연령대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많은 방문객들이 부스를 방문했는데 그 중 몇몇은 TV와 라디오 방송, 스승님의 자선 활동을 통해 스승님을 알고 있었다. 부스를 방문한 한 방문객은 1990년대 초 스승님께서 필리핀 난민 수용소를 방문해 그를 포함한 어울락 난민들에게 베풀어 주신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축제 동안 많은 어린이들이 부스로 와서 동수들이 주는 사탕, 빨간 봉투(중국과 어울락에서 전통적으로 설에 주는 새뱃돈)와 스승님의 감로법어가 새겨진 풍선 등과 같은 선물을 받아갔다. 흥미로웠던 것은 동수들이 전시회에서 떠날 채비를 할 무렵 어린이들이 계속 부스로 와서 장식에 사용했던 풍선을 가져가려 했는데, 마치 그들이 이미 스승님을 알고 편안해하는 듯해서 보기 좋았다.

또한 새크라멘토 동수들은 2004년 2월 12일과 13일에 새크라멘토

남쪽에서 열린 또 다른 테트 행사에 참여했다. 이 행사에서 동수들은 다른 부스들처럼 음악과 사자춤, 노래 등을 선보이는 한편 대중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도 소개했다. 많은 사람들은 나눠주는 스승님의 비디오와 오디오테이프가 무료라는 것을 믿기 어려워했다. 그 중에 부스를 찾은 사람들은 스승님의 잡지나 견본책자, 테이프 등 몇 가지를 여러 차례 받아가기도 했다. 특히 흥미로웠던 사실은 꽤 많은 어린아이들이 부스에서 상영되는 스승님의 낭송 비디오에 매료된 듯했다는 것이다.

스톡턴과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테트 축제에서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동수들의 활동에 좋은 인상을 받았다. 이에 새크라멘토와 샌프란시스코 동수들은 새해를 맞아 내년에도 다시 행사에 참여하여 스승님의 도구로 겸손히 일하고, 각계각층의 모든 이들과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누겠다고 결심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식

새해를 맞이해 신성한 가르침을 전하다

산호세 뉴스그룹

[산호세] 지난 10년 동안 해 왔듯이 2005년 2월에도 미국 산호세 센터 동수들은 어울락 교민회가 주최하는 대규모 음력설 축제에 부스를 설치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수천 명이 방문하는 홀에 위치한 동수들의 부스는 사랑하는 스승님의 법상과 그림, 만세등과 같은 아름다운 예술작품들로 돋보였다. 전시품을 관람하던 한 신사는 만세등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살 수 있는 방법을 묻기도 했으며, 다른 방문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무료 채식요리법과 견본책자, 뉴스잡지를 집어 갔다.

동수들은 부스에 설치된 대형 TV에 어울락 자막이 있는 DVD 강연을 계속해서 상영했는데, 세 살 가량의 한 어린 소녀는 강연에 매혹된 나머지 눈을 떼지 못했고 그녀의 어머니는 스승님의 감로법어가 담긴 채식 행운의 쿠키를 먹었다. 몇 분 후 어머니가 가자고 하자 그 어린 부처는 마지못해 스승님에게서 시선을 떼고 자리를 떠났다.

축제 기간 내내 방문객들은 명상과 채식, 방편법에 대해 질문했으며, 일부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방송되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라디오 및 TV프로그램을 통해 스승님의 가르침에 친근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방문자는 "스승님의 강연이 라디오로 방송될 때마다 듣고 있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 동안 부스를 방문한 사람들은 새로운 라디오 웹사이트 http://www.TrucTiepCauThongThuongDe.net(어울락어로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이란 뜻)를 소개 받기도 했다. 산호세 라디오 방송의 유일한 공식 웹사이트인 이 새로운 사이트는 다양한 주제로 뉴스잡지에서 발췌된 스승님의 가르침에 관한 텍스트 버전과 짧은 동영상을 선보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더

많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5년 어울락 음력설 축제 동안 산호세 동수들은 스승님의 강한 사랑과 축복을 느꼈으며, 많은 신의 자녀들에게 신성한 메시지를 전하고 영적인 이로움을 나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스승님께 감사드리고 싶어했다.

캐나다 퀘백 소식

신의 영광으로 충만한 음력 설 경축 행사

델파인 팬도우 & 응히아 응우옌/ 몬트리올

[몬트리올] 만여 명 이상의 어울락인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1월 30일 음력 설 경축행사가 몬트리올 올림픽 경기장에서 화려한 막을 열었다. 살을 에는 듯한 겨울 날씨 속에서도 이날은 날씨가 쾌청했던 덕분에 올해 행사에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에 몬트리올 센터의 동수들은 예년처럼 부스를 열어 스승님의 가르침을 주민에게 소개했다.

상서로운 날의 이른 아침부터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진, 그림, 출판물과 생화 꽃꽂이로 부스를 꾸몄다. 평온하고 고양된 우리 부스는 전통 어울락 복장을 하신 아름다운 스승님의 사진으로 인해 축제에서 가장 돋보였다. 스승님은 미소로서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부스로 이끌었다. 또한 부스에 설치된 두 대의 TV에는 오랜 세월 동안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도우신 스승님의 물질적·영적 활동이 담긴 비디오가 상영되었다. 올해가 닭의 해이기 때문에 한 사저는 우아하게 춤추는 아름다운 초록색 수탉을 그린 안내판을 디자인하여 모두에게 즐거운 새해가 되도록 기원했으며, 이는 우리 부스를 한결 돋보이도록 만들었다. 아름답고 고양된 기운으로 어우러진 우리 부스에 이끌린 많은 사람들은 스승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고 스승님의 작품을 보며 놀라워했다. 행사장 한쪽에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가 퀘벡시의 팅윅, 워윅, 체스빌에서 벌인 홍수 구호 활동 사진과 함께 특히 심하게 피해를 입은 고아원의 구호 및 원조활동 사진이 함께 전시되었다.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단체의 활동에 관심을 보였는데, 그 중 몇몇은 우리가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놀라워했다. 고아들과 어려운 사람들, 난민들을 돕는 동수들의 사진을 보러 온 방문객들로부터 잔잔한 사랑이 전해져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행사 기간 중 동수들은 많은 관심을 보이는 방문객들에게 수백 권의 뉴스잡지와 견본책자,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으며, 스승님의 가르침을 더 배우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몬트리올 센터를 방문하도록 초대했다. 또한 책자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는 것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부스는 하루 종일 분주한 가운데 재미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으며, 축제가 끝나기 세 시간 전에는 모든 프랑스어판 견본책자가 동이 나기도 했다.

부스를 방문해 스승님의 목소리에 매혹된 아이들은 직접 스승님을 뵙고 싶어하는 듯처럼 TV스크

린을 만졌다. 여섯 살 가량의 한 프랑스계 캐나다 소녀는 혼자 부스에 와서 출판물에 있는 스승님의 사진을 한참 보더니 견본책자를 가져가도 되냐고 물었다. 동수가 무료로 가져갈 수 있다고 하자 소녀는 눈을 반짝이며 환하게 웃고는 견본책자 한 권을 가져갔다. 그 소녀는 몇 걸음 걷다가 멈춰 서서 15분 가량 스승님의 표지 사진을 보더니 다시 들러 부모님 것도 한 권 달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아이의 부모는 우리의 부스에 오진 않았어도 딸에게서 이번 행사의 가장 값진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행사 마지막 날, 2005년 음력설 축제에 참여한 동수들은 스승님의 무한한 은총을 느끼고서 매우 행복해했다. 보다 많은 신의 자녀들이 천상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울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캐나다 온타리오 소식

2005년 테트 축제에서 신의 메시지를 전하다

데위 프라냐/ 토론토

[토론토] 2005년 2월 5일 캐나다 미시소거의 허쉬 센터(Hershey Center)에서는 수백 명의 방문객들이 모인 가운데 테트(어울락 새해) 경축 행사가 열렸다. 동수들은 행사 기간 동안 부스를 열고 이 지역 어울락 사람들에게 관음법문과 스승님의 사랑을 알렸다.

축제에는 다양한 다른 볼거리들도 많았지만 많은 방문객들이 우리 부스 앞에 멈춰 서서 스승님의 우아한 모습이 담긴 포스터를 매우 존경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지난해에도 우리 부스에 왔던 한 부인은 올해도 뉴스잡지를 받으러 와서 "스승님은 너무 아름다우세요. 전 그분의 최근 사진을 더 많이 갖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옆 부스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렸는데도 많은 방문객들은 주의 깊게 비디오 강연을 보고 더 많은 정보를 얻었다.

2005년 미시소거의 테트 축제에 참여한 동수들은 행사 기간 동안 운 좋은 많은 영혼들이 스승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에 흐뭇해했다.

행사 메모

현재 진행 중인 지구의 영성 고양에 발맞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전세계 각지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홍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의 홍법 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인도 소식

관음법문이 부처의 땅으로 돌아오다

뭄바이 작업 팀

[뭄바이] 2005년 봄 태국과 포모사, 독일 동수들은 2월 4일부터 13일까지 뭄바이의 반드라 쿨라 전시장(Bandra Kurla Complex)에서 열린 국제 도서 박람회와 인도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비디오 강연회에 참가했다.

• 영적 수확이 풍부했던 도서 박람회 •

박람회 전날, 전시대를 설치할 때부터 떠나려고 할 때까지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힌두어로 된 견본책자를 요청했다. 그들은 매우 신실했으며 행사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전통적으로 여자 스승을 성모(聖母)라고 부르는 인도에서 집으로 돌아가길 갈망하는 영혼들을 안내하시는 스승님의 보이지 않는 무소부재한 힘에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았다.

박람회 기간 동안, 매력적인 '사리'를 입은 사저들이 손님들을 맞았다. 힌두어를 사용하는 이 지역 방문객들은 스승님의 출판물을 열심히 읽고 큰 관심을 보이며 60개 언어로 된 견본책자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것에 놀라워했다. 몇몇 학자들은 견본책자를 마라티(Marathi), 우르두(Urdu), 구자라티(Gujarati), 말래야람(Malayalam), 간나다(Gannada) 같은 여러 인도어로 번역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지역 한 방송국에서도 우리 부스를 방문해 저녁 뉴스에 보도했다.

여러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도 전시장을 방문해 포스터의 자비로운 스승님 눈빛을 가장 좋아한다며 스승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방문객들은 태국 사저들이 장식한 생화를 비롯한 모든 곳에서 빛과 에너지가 뿜어져 나온다고 말하며 우리 부스에 애정을 표현했다. 또한 부스에 장식된 스승님의 만세등에서 기쁨과 평화의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느꼈다며 만세등 '달빛'에 대해 많이 물었고 스승님의 디자인을 높이 평가했다.

우리는 다른 부스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그 중 몇몇은 행사 동안 우리 전시장을 여러 번 방문했으며 맞은편 부스 책임자는 우리 전단지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눠 주기까지 했다. 또한 전시장에서 일하는 경찰과 안전요원들도 우리 부스를 종종 방문해 사탕을 받거나 스승님의 비디오를 보곤 했다. 스승님의 커다란 법상에서 나오는 무형의 빛과 강한 힘에 이끌려 많은 구도자들이 입문을 신청했으며, 몇몇 교육기관과 병원 대표들은 세계 최고의 고대 수행법인 관음법문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시설에 소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도의 영성에 관해 몇 권의 책을 쓴 M.A. 스리니바산 씨도 우리 부스에 와서 "스승님의 모든 말씀 속에는 인도 경전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놀라운 보물들이 담겨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방편법을 배우고 입문 신청을 한 그는 스승님의 말씀과 관련 있는 힌두 경전의 내용을 인용해 성모(聖母) 칭하이에 대한 책을 쓰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냈다.

•강연회의 열렬한 호응 •

우리는 전시회가 끝난 후 6일 뒤, 뭄바이에 있는 인도 상공회의소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행사 전 우리는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전단지를 나눠주었기 때문에 강연회는 성공을 거두었다.

강연회 당일, 약 270명의 구도자들이 참석했다. 스승님의 1999년 영국 런던 강연인 '용기 있게 삶에 맞서라'를 힌두어 자막으로 보는 동안 참가자들은 스승님의 지혜롭고 유머가 넘치는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강연 내내 참가자들이 스승님을 정말 존경하고 웃고 박수 치며 스승의 힘과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강연 후, 173명이 방편법을 배웠고 그 중 121명이 입문 신청을 했다.

스승님의 축복으로 2005년 뭄바이 국제 도서 박람회와 비디오 강연회는 모두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동수들은 스승의 위대함을 알고 고귀한 가르침을 수용하여 스승의 안내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을 시작한 인도 사람들의 영적인 안목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호주 퀸즐랜드 소식

천상의 가르침이 호주 북쪽 끝까지 미치다

매튜 서피스/케언스 하일랜드

[케언스 하일랜드] 지난해 호주 남부에 사는 두 명의 동수가 북쪽의 산악지대로 이사했다.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한 곳으로 열대지역이지만 높은 고지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연안지역보다 날씨가 온화하다. 호수와 열대우림이 대부분인 이곳은 여러 마을에 약 2만 명이 살고 있다. 신실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일랜드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에 이끌려 이곳에서 단순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2005년 2월 6일 아더톤(Atherton) 지역에서 처음으로 비디오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이 강연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참석했지만 청중들은 스승님의 1999년 아일랜드 더블린 강연인 '영성은 역경 속에서 빛난다'를 열심히 시청했으며, 참석자의 3/4이 다가오는 일요일에 방편법을 배우기로 해서 행사는 매우 성공적으로 끝났다.

또 4개월 전 건강엑스포에서 견본책자를 받은 한 회원을 통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를 알게 된 이 지역의 '신지학' 모임은 케언스 하일랜드 동수들에게 자신들의 모임에 참석해 관음법문에 대해 소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수의 발표가 있던 날,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모임에서 동수가 관음법문에 대해 발표하기 전 상영한 비디오는 피타고

라스의 철학에 근거해 소리의 본질과 우주가 어떻게 음류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는 우주적 소리에 대한 스승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강연에 참석한 한 여성은 2주 전 중고품 가게에서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발견했을 때 『즉각 깨닫는 열쇠』라는 제목을 보고 견본책자를 집에 가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그날 밤 스승님께 관음법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자 스승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셨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녀는 친구에게 이끌려 '신지학' 모임에 오게 되었는데 마침 그곳에서 동수의 관음법문 소개를 듣게 된 것이었다. 이토록 빨리 기도의 응답을 듣게 된 그녀는 매우 기뻐하며 바로 방편법을 배우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스승님의 무한한 축복 덕분에 케언스 하일랜드 지역에도 신의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전해질 수 있었다.

대한민국 소식

신의 일을 함으로써 믿음과 자신감이 확고해지다

부산 뉴스그룹

[양산] 2005년 3월 13일, 부산 동수들은 문화재가 많기로 유명한 부산 근교 양산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함으로 봄의 시작을 알렸다. 행사 내내 열심히 일한 동수들의 헌신으로 행사는 성공적이었다.

행사 당일 햇살이 밝게 빛나는 가운데 양산 예술문화센터의 문을 열자 명상법과 참 스승에 대해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신실한 방문객들이 안내석으로 몰려왔다.

많은 참석자들이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 '삶은 영원히 지속된다'를 본 후 방편법을 배웠다. 몇몇 참석자들의 영적인 질문에 동수들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답변해 주었다. 참석자들은 질문에 대한 만족스런 답변을 듣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행사장을 떠나는 밝고 빛나는 얼굴에서 우리는 참석자들이 영적인 만족을 얻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산 동수들은 2005년 3월 양산 비디오 강연회와 같은 활동은 신의 뜻에 의한 것이며 이런 활동을 통해 이타적인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 이와 같은 다른 이들에 대한 봉사를 통해 동수들은 행복으로 가득 차고 믿음과 자신감을 굳건히 다질 수 있었다. 때문에 동수들은 조만간에 또 다른 강연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카메룬 소식

스승님의 축복 속에 진리를 나누다

카메룬 뉴스그룹

[카메룬] 지구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보다 많은 중생들과 진리를 나누고자 하는 스승님의 노력에 부응하고자 카메룬 동수들은 2005년 2월 22일 칭하이데이에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동수들은 일주일 전부터 강연회 소식을 TV와 라디오를 통해 홍보하고 천 장이 넘는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스승님의 축복과 동수들의 노력으로 강연회에 약 2백 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행사가 되었다. 행사가 끝났는데도 많은 참석자들은 떠나지 않고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센터 주소를 물었다.

사랑의 정신으로 신의 일을 할 수 있었던 홍법 활동을 통해 카메룬 동수들은 스승님의 무한한 축복을 체험할 수 있었다.

포모사 소식

꽃의 바다 한가운데 피어난 영성의 빛

타이베이 뉴스그룹

[타이베이] 2005년 3월 19일과 20일 양일 간 포모사 북부지역 대학 활동 모임의 동수들은 국립 포모사 대학의 화려한 진달래 축제에서 예년처럼 홍법을 펼쳤다.

동수들은 '삶을 다채롭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스승님의 출판물과 훌륭하게 차려진 채식으로 부스를 꾸몄다. 또한 축제의 분위기를 밝고 활기차면서도 영적으로 고양시키기 위해 스승님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암송했다. 동수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임과 축복 카드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터트리며 스승님의 가르침과 명상법, 채식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젊은 동수들은 내면의 축복과 넘치는 사랑이 담긴 역동적인 춤과 정열적인 기타 연주, 수행 가곡 등을 선보였다.

한때 중국어를 배우러 포모사에 온 한국인 이(李) 사저에게 집을

빌려준 적이 있던 한 방문자는 이 사저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명상하고 공부하고 일을 하면서도 하루 종일 고양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며 많이 부러워했다고 얘기했다. 그녀는 활력있는 이 사저의 삶의 근원이 관음법문 수행인 것을 알고는 관음법문에 흥미를 느끼게 되어 축제 동안 방편법을 배웠고 이 사저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축제가 열리는 동안 동수들의 부스는 캠퍼스에서 가장 즐거운 곳이었다. 내면의 기쁨을 찾는 많은 영혼들은 행복한 분위기에 이끌려 이곳으로 왔고 스승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동수들과 함께 나누었다.

아름다운 섬이 황금시대에 밝게 빛나다

2005년 진먼 등 축제

진먼 작업 팀

[진먼] 2005년 2월 23일에서 25일, 화려한 등 축제가 진먼섬의 주최로 많은 역사적 볼거리와 전통 건축물로 꾸며진 진먼 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음력 정월 보름에 시작된 이번 행사는 이 지역 자치단체의 후원을 받았고, 주요 참가자 중 하나인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문화재 관리국의 초청으로 부스를 설치했다. 진먼 동수들은 형형색색의 반짝이는 등과 진먼 산림청으로부터 제공받은 5백 개의 화분으로 천국을 지상에 옮겨놓은 듯 전시장을 연출함으로써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동수들은 황금시대 2년을 맞아 영적 기운이 진먼 지역에 퍼지기를 바라며 이번 전시회의 주제를 '황금시대에 진먼의 불을 밝히다'로 정했다. 동수들은 포모사에서 특별히 스승님의 만세등을 가져와 스승님의 그림과 함께 전시했다. 독특한 모양의 만세등에선 신의 영원함을 상징하는 영성의 빛이 밝게 빛났다. 만세등과 예술 작품은 참석자들의 영혼 깊은 곳에 남아 있던 천상의 기억을 일깨워 주었다.

축제 개막일인 2월 23일, 축제의 개막을 위해 몇 명의 지역 관리들이 행사장을 방문했다. 나중에 진먼 행정장관인 리주펑 씨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부스를 방문해 동수들을 격려하며 "칭하이 무상사에 대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스의 상징물인 칭하이 무상사의 아름다운 창작품들을 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리 씨는 등이 밝음을 상징하므로, 만세등 전시로 방문객들이 보다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또한 협회의 뛰어난 지원과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조만간에 진먼 주민들이 칭하이 무상

사를 초청할 수 있는 영광스런 기회가 있기를 희망했다.

축제 기간 동안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지역 주민들이 전시회를 찾았다. 그 중 한 진먼 유치원 교사는 아이들이 전시된 만세등을 볼 수 있도록 한 명씩 들어 올려 주며 만세등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 한 어머니는 각 그림과 만세등에 담긴 의미를 사랑하는 딸에게 차분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신의 손'이라는 만세등에 특별히 감명을 받은 한 부부와 그의 자녀들은 부스에서 오랜 시간 머물렀다. 예년에도 등 축제에 참가했던 많은 이곳 주민들은 이번 행사가 예년의 그 어떤 행사보다 독특하고 아름답고 기쁨이 넘친다고 하면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가 매년 축제에 참가해 주기를 희망했다.

진먼 경기장의 관리자인 쉬한성 씨는 부스를 장식하고 있는 동수들의 일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순수하고 열성적인 진먼 주민을 대표해서 도움을 주고자 했다. 쉬 씨는 또한 "훌륭한 전시장을 꾸며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시 관련 자료들이 남는다면 나중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라고 말했다. 그림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자주 부스에 들러 스승님의 그림과 만세등을 감상했고 본인도 자주 채식을 했다며 동수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그 후 그는 방편법을 배우고 가슴에 간직하고 있던 영적인 씨앗을 키우기 시작했다.

축제 첫날 오후, 동수들은 홍법을 위해 시청각실에서 '음악 축제와 영혼의 고양'이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리주펑 씨와 쉬한성 씨는 치사를 통해 스승님의 가르침과 동수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많은 참가자들이 방편법을 배웠는데 그 중에는 할머니들도 몇 분 계셨다. 이 할머니들은 천국의 '대할인' 행사에 합류함으로서 더 이상 뒤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동수들은 할머니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살아 있는 스승을 따라 수행할 행운을 얻은 것에 기뻐했다. 축제 기간 동안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방편법을 배우고, 관음 가족이 된 것에 동수들은 기쁜 마음으로 환영했다.

스승님의 축복과 다른 센터 동수들의 지원 속에서 동수들은 자신의 지성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 2005년 진먼 등 축제의 홍법 활동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었다. 관음가족의 일원이 된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위 행사의 주요 내용은
CTI TV 오락채널 '예술과 영성 제137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hichannel/index.htm(영어 + 중국어 자막)

국경 없는 신의 사랑

수행으로 지구의 의식을 고양시키자

–2005년 타이베이 국제 도서전 소식

타이베이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음력 설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인 2월 15일부터 20일까지 타이베이 세계 무역센터에서는 책 향기가 가득한 '2005 타이베이 국제 도서전'이 열렸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칭하이 무상사 출판사는 올해도 행사에 참가해 시청각 자료, 홍법 활동, 다양한 예술 매체를 통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했다.

도서전 기간 중 동수들은 음악 공연, 촌극, 홍법 세미나 등 의식을 고양시키는 12가지 행사를 마련하여 방문객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세미나에서는 내면의 음류의 경이로움과 만물이 평등하다는 진리, 그리고 동물들에게

까지 사랑을 확장시키자는 이상을 다루었다.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과 동수들의 개인적인 설명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관음법문 수행을 통해 인간 관계와 결혼 생활에서 성장하고 영적 깨달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2월 19일 오후, "국경 없는 신의 사랑: 수행으로 지구의 의식을 고양시키자"라는 주제의 세미나는 포모사 각계의 유명 인사와 외국인 등 많은 청중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 중 포모사 외무부 대변인인 루칭룽 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랑으로 지구촌을 하나 되게 한다는 생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전세계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포모사 국민들의 국가적 긍지의 대상으로서 '국경 없는 신의 사랑' 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고, 국제 사회와 상호 교류하며, 포모사 정부 및 국민과 함께 포모사를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 사회로 만드는 성과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기 이상의 행동과 지혜, 그리고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오랫동안 사랑을 실천하고 문명의 번영에 기여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자질을 고양시키고 인류를 이롭게 하는 실질적인 성과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르네상스 음악연맹' 의 예술 총감독인 피터 리츤(Peter Ritzen)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협회가 하는 위대한 일에 저의 모든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비롭고 서로 사랑하며 선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악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주에 도움을 주어 조화롭고 훌륭하고 동시에 우리가 신과,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되기를 희망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수많은 재해와 재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를 위해서는 신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며 그렇게 했을 때에만 신이 계속해서 지구를 축복할 것이란 점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인 "큰 변화는 하나의 고양시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 세상의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와 일치한다. 세미나가 끝나고 수십 명의 참석자들이 스승님의 무소부재한 축복을 체험하고 신의 빛으로 세례를 받고자 방편법을 신청했다.

2월 20일 아침 동수들은 빛의 "에덴 동산: 누가 빛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범상치 않은 제목의 홍법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화려한 은빛 의상을 입은 원주민 무용가 구무터씨는 빛과 소리의 효과와 생생한 내레이션에 맞추어 환상적인 춤을 공연함으로써 "모든 피조물은 신의 빛으로 만들어졌다."와 "우리가 빛이고 빛이 우리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우리는 이 밖에도 스승님의 강연에서 발췌한 내용을 공연과 함께 상영

해 우리가 깨달은 스승의 인도에 따르기만 하면 성스러운 빛을 즉각 체험하고 다시 신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청중들에게 잘 전달했다. 오후에는 "이상형 찾기"라는 주제로 젊은이들을 위한 특별 세미나가 열려 많은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 중 많은 수가 방편법을 배워 신의 왕국으로 돌아가는 왕자와 공주 대열에 합류했다.

전시회 동안 약 백여 명의 참가자들이 방편법을 배우고 신과 경이로운 접촉을 할 수 있었다. 그 중 타이중에서 온 장 여사는 점술가로부터 방편법을 수행하라는 말을 듣고 스승님과의 인연을 알게 되어 우리를 찾아왔다. 장 여사는 채식한 지 6개월째 되던 날, 방편명상을 하던 중 흰빛과 노란빛으로 나타나신 내면의 스승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를 통해 스승님께서 언제나 묵묵히 그녀를 인도하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에게 방편법을 전수해 준 사저를 친자매처럼 느꼈다. 이런 체험들로 장 여사는 자신이 전생에 스승님의 자녀였다는 점술가의 말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애완동물보호 세미나 '동물의 신성함-사랑에 민감한 존재'에 참가한 즐거운 동수들.

또한 잠재력 개발 전문가인 라이 여사는 우리 사저들이 전시회에서 항상 즐겁게 일하는 것을 보면서 사저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해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2월 19일 아침, 동수들의 촌극을 보러 온 라이 여사는 자신이 전시장에서 꼬박 1시간 동안 스승님의 TV강연을 보고 있었다는 것에 놀라워했다. 그녀는 스승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변했다고 느꼈다. 나중에 그녀는 한 사저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우리가 오래 전부터 아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방편법이 긴장과 스트레스를 덜어 주기 때문에 방편 수행이 즐겁다고 덧붙였다.

스승님의 2000년 타오웬 경기장 강연을 들었던 신디엔에서 온 방문객은 도서전을 참관하다 우리 부스를 발견했다. 그녀는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사저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눈 후 아들과 함께 방편법을 신청했다. 그녀는 방편 전수 때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나중에 다시 부스로 돌아와 스승님의 DVD 강연을 시청하다가 감미로운 백단향을 맡은 그녀는 처음에는 동수들이 향을 피운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그 냄새의 원인을 알고 난 후 자신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승님의 즉각 깨닫는 방법이 수승하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한 젊은 스님도 부스를 방문했다. 그는 5년 전에 스승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시후 센터를 방문하기도 했기 때문에 도서전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다시 접하게 된 것에 매우 기뻐했다. 또한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방편법을 배우자고 권해 인연 있는 사람들이 천국의 문으로 들어서게 해주었다.

부스에 있던 한 사저가 불교서적을 전시하는 옆 부스의 직원과 친해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부스의 관

세미나 '진정한 사랑을 깨닫기-결혼생활에서의 영적인 성장'에 참석한 귀빈들.

리자가 그곳에 전시된 '삼매 탐지기'를 시험해 보자며 사저를 초대했다. 사저에게 잠시 명상하라고 해서 사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몇 초 동안 오불을 외웠다. 그러자 관리자가 "방금 무엇을 했습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사저가 "저는 칭하이 무상사가 가르쳐 주신 성스러운 이름들을 속으로 외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사저의 대답에 놀라워하며 사저가 성스러운 이름을 외웠을 뿐인데 그 기계가 쉽게 반응하게 된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 기기는 명상하는 사람의 삼매의 수준을 측정하는 매우 값비싼 것으로 전시회 동안 매일 대략 80명 정도의 사람들을 측정했었다. 하지만 불교 승려나 수녀들을 포함해 그렇게 빨리 삼매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는 관음법문의 엄청난 힘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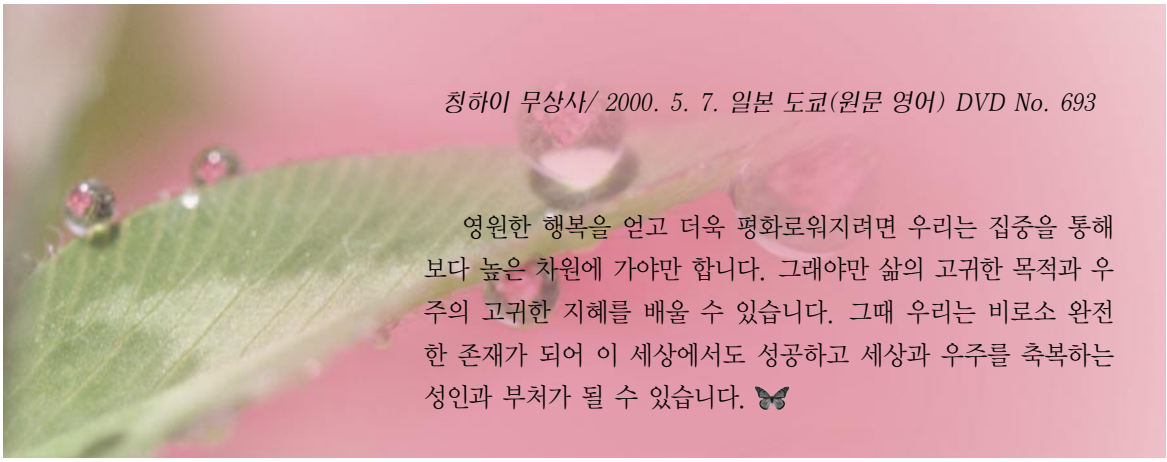
2005년 타이베이 국제 도서전에서 많은 구도자들이 칭하이 무상사와 그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스승님의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고 내면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타이베이 동수들은 스승님의 축복과 안배로 수많은 영혼들의 삶에 다채로움과 활기를 더하는 또 하나의 성공적인 홍법 행사를 갖게 된 데 대해 스승님께 깊이 감사드렸다.

위 행사의 주요 내용은
CTI TV 오락채널 '예술과 영성 제137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hichannel/index.htm
(영어 + 중국어 자막)

감로법어

영적인 성장에 집중해 완전한 존재가 되라



칭하이 무상사/ 2000. 5. 7. 일본 도쿄(원문 영어) DVD No. 693

영원한 행복을 얻고 더욱 평화로워지려면 우리는 집중을 통해 보다 높은 차원에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삶의 고귀한 목적과 우주의 고귀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존재가 되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세상과 우주를 축복하는 성인과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겁낼 필요 없소!!

칭하이 무상사/ 1992. 2. 6. 포모사 시후(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209

동물원에서 인기 있는 침팬지 한 마리가 병이 나자 치료차 수의사에게 보내졌습니다. 침팬지가 없는 동안 방문객 수가 줄자 동물원 관리인이 머리를 썼어요. 그는 실직자 한 사람을 고용해 침팬지 모양의 털옷을 입히고 우리 안에서 이리저리 뛰어 다니며 나무타기를 하게 했죠. 그러자 아주 효과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루는 그 가짜 침팬지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나무타기를 하다가 실수로 옆 우리에 떨어졌어요. 끔찍하게도 그의 이웃은 호랑이었습니다. 호랑이가 그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며 으르렁거리자 가짜 침팬지는 계속 뒷걸음질을 쳤지요. 호랑이가 그 코앞까지 다가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자 가짜 침팬지는 두려움으로 떨며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말했지요. "겁낼 필요 없어! 나도 가짜야!"

머리를 기르는 대가

칭하이 무상사/ 2001. 12. 28.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35

부유한 아버지를 둔 한 십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작은 중고차 한 대를 사달라고 하자 그의 아버지는 학교 성적이 "수"여야 하고, 좋은 학생이 되어야 하며 긴 머리카락을 잘라야만 차를 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수"를 받고 행실도 좋아지고 모든 면에서 괜찮아졌지만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싫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느냐?"고 물었죠. 그의 아버지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시겠지만 예수님도 머리카락이 길었고 모세도 긴 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머리카락을 잘라야 해요?" 그러자 아버지도 대꾸했지요. "맞아, 예수님과 모세는 머리가 길었지. 그렇다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걸어다녀야 했다는 것도 알겠구나!"

스승님의 위 농담을 동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news/157/jk1.htm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57/jk1.htm (포모사)

오직 깨달은 자만이
신을 알고 인류를 이롭게 할 수 있다

청하이 무상사/ 1992. 2. 27. 말레이시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220

고대에 스승을 따라 수행했던 사람들은 스승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이라는 의미에서 스승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웃고 음식을 먹고 얘기를 나누던 주님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이른바 경전을 통해 주님에 대해 배우고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주님'은 곧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기록했지요. "나의 주님은 아주 자비로우십니다. 주님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를 도우시며, 빛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나는 주님이 빛으로 다가오시는 걸 봅니다. 주님은 저에게 천둥처럼, 폭포수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경전을 통해 이른바 '주님'에 대해 알게 되지만 그 주님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제자의 주님이었지 우리의 주님은 아니니까요. 제자들은 그를 개인적으로 알았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를 모른다면 주님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주님이 인격체인지 비인격체인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내면의 주님을 성장시키지 않고 주님의 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주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주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를 모르니까요. 주님은 여러분 내면의 수준에 따라 존재합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며, 그때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하는 많은 노래들을 지을 수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선량함과 여러분이 가진 힘을 인식하게 되면 주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장할수록 신 혹은 주님은 더욱 영광스러워지며, 여러분은 자기 내면에 있는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지 더 잘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알게 되는 길이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님, 주님'하며 찬양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를 모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그를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령 다른 사람이 주님을 깨달아서 그 주님이 그에게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해주셨다고 한들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

니다. 도울 수가 없는 거지요! 자신만의 주님을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 신을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신을 숭배하거나 부처를 숭배하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부처를 만드는 법을 알려 줍니다. 신을 만드는 것, 그 힘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중 박수)

심지어 신이 존재한다고 해도 스스로 그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이 존재하거나 다른 이에게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 신은 여러분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입을 뗄 때마다 "신이시여, 신이시여, 신이시여."하며 신을 얘기하면서도 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신을 활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그런 신이 존재한다고 한들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하든 모독을 하든 똑같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찬미한다면 그건 가장 큰 신성 모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공부할 몫이 있습니다. 단지 내가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래야 여러분이 깨어나고 신을 만든다는 논리를 이해하며 성경에서 "신의 왕국은 여러분 내면에 있다."라고 한 이유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부처가 "불성은 자신의 내면에 있으며, 마음 속에 있다."라고 말한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을 만들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이 내면의 신을 깨우고 그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그 힘을 여러분 자신과 인류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부처나 신을 알게 되며 그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를 신, 부처, 주님 혹은 원하는 그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좋습니다. 그저 찬양하거나 숭배하지만 말고 신을 이용하세요. 신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었는지를 알고 난 이후에나 여러분은 진정으로 신을 찬양하고 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치는 자신의 내면 이외에는 어디에서도 신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라야 알게 됩니다. (대중 박수)

스승은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 느낀다

나는 때때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전세계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지 속에서 헤매면서도 나오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옥에서 수천 년 간 고통 받고 있지만 아무도 돌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울곤 합니다.

내가 울 때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나 혼자만 환상이라는 것을 알고, 고통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정말로 알고 싶어하질 않아요. 그러한 사실이 나를 울게 만듭니다. 그들의 고통이 날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이지요.

스승 없이는 신을 알 수 없다

스승의 은총, 신의 축복은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자고이래로 사람들은 "주님, 자비로운 주님, 무지의 사슬을 끊어 주시는 주님, 윤회의 사슬을 잘라 버리신 주님" 등 다양한 표현으로 신을 찬양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건 그 당시 살아 있는 스승에게 해당되는 것일 뿐 스승 이외의 다른 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스승이 없다면 신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스승을 통해서만 신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승이 신을 아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지요. 그럼 여러분은 자신이 스승이며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스승이 그토록 자비롭다는 걸 알게 되어 "스승이 없었다면, 신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다."라고 찬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을 신보다 우선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깨달음과 자각이 없다면 신은 진실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 다른 신은 없습니다. (대중 박수) 여러분이 이 점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추상적이지만 매우 논리적이지요. 만약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이지 여러분의 무지에 탄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입문은 돌파의 기점이며, 명상은 신의 힘을 수행하는 것이다

입문할 때 스승의 힘과 내면의 신의 힘으로 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그다지 순수하지 않았더라도 신의 힘으로 깨끗해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옥의 문을 깨고 나가서 이 물질 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빛과 소리를 잠깐 동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문을 돈오 또는 즉각적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높은 세계와 연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고쳐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절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빛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해서 이 물질 세계를 깨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밖에 태양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집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고 나가지 않으면 태양이 있다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신의 빛과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문을 닫고 세세생생 우리의 나태함에서 비롯된 스스로의 편견과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문 때 스승은 우리에게 단번에 문을 깨고 나갈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입문식 동안뿐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수많은 이 세상 너머의 것들이 있으니까요. 입문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 차크라로부터 차례대로 올라와 이곳(스승님께서 지혜안을 가르키심)까지 10년은 수행해야만 겨우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혜안부터 시작합니다. 스승은 모든 힘을 끌어 모아 여러분의 지혜안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빛을 보고 그곳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지혜안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그 문을 통해서 많은 훌륭한 저택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입문식 당일에 5세계를 갔다 하더라도 매일 가고 또 가고 해서 그곳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높은 세계일수록 주파수가 높은데 우리의 무거운 영혼은 아직 그곳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높은 경지에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계를 떠날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주파수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서 새로운 차원에 적응할 수 있는 거지요.

매 순간을 소중히 하라

여가 시간이 있을 때면 언제든 명상하십시오. 아침 일찍 혹은 저녁에만 명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정해진 시간이고 그 사이 휴식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앉아서 명상하십시오. 명상하는 매 순간이 다 여러분의 공덕의 저장고에 더해질 것입니다.

명상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여러분의 자리를 가지고 싶어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보다 고상한 삶의 방식을 진심으로 열망하고, 우주를 위해 보다 차원 높은 봉사를 하고 싶고, 다른 차원의 지혜로운 존재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 더 지혜로운 사람, 성인이 되고 싶다면, 시험을 치르고 자격을 딸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에 가는 것처럼 매일 명상해야 합니다. 비는 시간은 모두 명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명상은 모든 해답을 제공한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명상을 더 많이 하고 내면의 스승에게 물어보기만 하면 답을 얻을 것입니다. 만약 답을 얻을 수 없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에게 편지를 써도 됩니다. 어떤 때에는 편지를 쓰자마자 이해하고 답을 알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면 내게 편지를 쓰십시오.

자신에게 있는 신의 힘과 지혜를 잘 활용하라

나는 여러분이 책임을 다하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겠다는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이 행성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경지까지 올라가면 깊은 삼매에 들었을 때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말했지만 내가 말할 때 여러분이 가끔씩 주위가 산만해지거나 내 옷을 보느라 내 말에 주의하지 않은 탓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비디오테이프를 구해서 반복해서 보십시오. 볼 때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다르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론과 수행, 두 가지를 다 부지런히 배우세요. 그 두 가지는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이 왜 그것을 하는지도 모른 채 마냥 맹신적이 될 것입니다. 그 둘 다를 수행하다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수행을 잘 한다면 모든 해답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혜롭습니다. 여러분에겐 신의 힘과 지혜가 있으니 그것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지혜어록

고등의 변신술

칭하이 무상사/ 1995. 7. 11. 포모사 시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488

흥미롭게도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외형이 변하기도 합니다. 뚱뚱한 사람들은 마르고, 깡마른 사람들은 둥글게 변하지요. 뚱뚱해지는 게 아니라 보다 충실해집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입문 직후에 일어나기도 해서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모습이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나조차 알아채지 못할 정도죠! 입문하고 나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더 사랑스럽고 친밀하고 오랜 친구 같았지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스승님은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실까? 바로 며칠 전에 스승님께 인사드렸는데,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 하고 생각합니다. 기억하기는 하는데, 내 기억 속엔 다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체 내의 화학 물질도 변하고 신체 조직과 세포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사고 구조도 다르게 변하고요. 비록 사용할 기회가 없어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집에 돌아갔을 때, 또는 똑같은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생기면 하룻밤 새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솟아 나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자신의 변화를 알게 되지요.

시

10년 넘게 관음법문을 수행하며 얻은 제 영적인 성장을 뒤돌아보면, 제 가슴은 칭하이 스승님에 대한 벅찬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이 시는 제가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최고 점에 도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스승님에 대한 내면의 느낌을 표현한 것입니다.

당신과 인연을 맺으며

샤오위/ 독일

당신을 알고
소리와 빛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신을 알고
인생의 참뜻을 찾았습니다.
당신을 아는 것은
우주의 어머니를 알고,
집으로 가는 길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을 그리니
제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당신을 그리니,
평범했던 나날은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당신을 그리니
신이 그립고
신의 왕국이 그립습니다!

당신에게 다가감으로
지혜의 바다에 잠깁니다.
당신에게 다가감으로
천국의 동산을 거닙니다.
당신에게 다가감으로
행복으로 향하고
평화를 맞이합니다!

그날은 올 것입니다.
제가 당신이 되는 그날이
당신과 저는 원래 하나니까요.
당신이 되니
사랑의 힘이 되고
당신과 하나 되니
진리와 하나가 됩니다!

기적의 99퍼센트

예비입문자 구/ 중국 본토 (원문 중국어)

몇 년 동안 나는 명상을 하고 염불을 했지만, 채식을 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2004년 4월에 나는 관음법문을 알게 되었고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자를 읽은 후, 채식을 하고 방편법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또한 『즉각 깨닫는 열쇠』 시리즈 전권을 구해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히 읽었고 이를 통해 관음법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얻게 되었다. 그후 내가 방편법먼을 수행하는데도 스승님의 무소부재한 힘은 내 형의 운명을 바꿔주셨다. 2004년 10월 15일 형수가 우리 부부에게 전화를 해서 형이 심근경색(심장마비)으로 응급치료를 받고 있다며 병원으로 급히 와 달라고 했다. 나는 즉시 칭하이 스승님을 떠올렸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스승님과 아미타불의 명호를 외우면서 스승님께 형을 구해 달라고 기도했다. 우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형은 이미 응급상황에서 벗어나 있었다. 형은 몸 상태가 좋아지자마자 생명이 위태로웠을 때 체험한 것을 얘기해 주었다. 형은 무의식 상태로 떠 있는 동안 갑자기 전조등보다 더 밝은 하얀 두 줄기 빛을 보았는데 너무 밝아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때 "당신은 왜 여기에 있나요?"라는 소리를 들었고 잠시 후, 누군가가 그를 때리는 느낌을 받고는 깨어났다. 그것은 그의 심장 박동이 멈춰서 의사가 전기 충격을 가한 것이었다. 그 충격이 있기 전, 그는 밝은 하얀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 나는 스승님의 화신이 형을 구하러 오신 것이 확실하다고 믿는다.

그날 밤, 형은 자신이 많은 금빛 광채의 보살들이 있는 거대한 절에 있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관음보살이 그에게로 걸어오더니 "당신의 발에 문제가 있으니 가능하면 앉아있지 말고 더 많이 서있어야 해요."라는 말을 남기고 스쳐 지나갔다.

형은 이 체험이 그가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관음보살이 그를 데리러 온다는 신호로 생각해 슬픔에 잠겨 딸에게 유언을 하고 '갈 길'을 준비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건 화신 스승님이 형을 만나러 오신 거야. 엄청난 축복이라고. 형은 분명히 병에서 곧 회복될 수 있을 거야. 스승님께서 더 서 있어야 한다고 말한 건, 형이 힘을 내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하려고 하신 거야. 너무 비관해서 죽음을 기다리진 마."라고 말했다. 그날 내가 점심을 먹여 주고 나자 형은 낮잠을 자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형은 눈을 감자마자 다시 눈을 뜨고는 앞에 많은 문양들이 나타난다고 했다. 내가 어떤 문양인지를 묻자 형은 즉시 눈을 감고 내게 그것을 설명해 주었다. "불교와 관련된 부조(浮雕) 형상처럼 보이는데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아주 아름다워."라며 형은 그 문양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하지만 눈을 뜨면 그것은 사라졌고 이런 현상은 이틀 동안 계속되었다. 나는 스승님께서 형을 구원하시는 동안 형의 천안을 열어 주시고 아름다운 내면의 비젼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틀림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에게 스승님의 명호를 더 자주 암송하고 빨리 낫도록 스승님께 기도하라고 말했다.

형은 장비와 시설이 열악한 시골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으나 그의 상태가 좋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없었다. 응급 처치를 받고 보름이 지나서야 시내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곳 의사는 검사 후 형의 관상동맥의 99퍼센트가 막혀 있다고 말했다. x-ray 화면을 통해서 보니 동맥은 실낱처럼 가늘게 뚫려 있었다. 의사가 동맥에 스텐츠를 성공적으로 삽입한 이틀 뒤 형은 완전히 위험에서 벗어났다.

나는 '99퍼센트'라는 숫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형이 목숨을 건진 건 정말 기적이었다. 스승님은 박동이 멈추어 버린 심장을 살려내시고 살 수 있는 확률이 1퍼센트밖에 안 됐는데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형의 회복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형의 체험을 동화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는 100퍼센트 사실이다. 예비 제자일 뿐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스승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형의 생명을 구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형을 대신해 감사드린다. 하루 빨리 입문해 스승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직접 뵙고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과 축복으로 은총 받고 싶다.

무소부재한 스승님의 돌보심

천 사저/ 중국 본토 (원문 중국어)

우리 가족에 대한 돌보심

1995년 딸아이의 팔에서 종양이 발견되었다. 의사는 우리에게 팔에 있는 많은 혈관과 모세혈관을 자르면 출혈이 심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는 많은 걱정을 했다.

그때 나는 스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명상을 시작했다. 그후 기적이 일어났다. 수술 중 출혈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놀라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수술 중에 출혈이 없었던 환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라고 말했다. 나는 스승님께서 딸을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스승님이 아니면 누가 그토록 놀라운 신통력이 있는가? 정말로 한 사람이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온 가족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나에 대한 스승님의 세심한 보살핌

2004년 집에 온수 꼭지가 고장이 나서 물이 나오질 않았다. 나는 새 수도꼭지를 사려고 생각하다 생각을 바꾸어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 나중에 고치기로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6개월이 지난 후 수도꼭지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대부분 오랫동안 수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녹물이 나오는데 이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은 깨끗했다. 이건 분명히 스승님께서 또 한 번 나를 위해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었다. 스승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혼자 사는 데다 나이도 많다는 걸 알고 계시기에 내가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신다. 항상 모든 면에서 돌봐주시는 스승님께 큰 감사를 드린다.

같은 해, 위층에 사는 이웃집에서 물이 샜다. 그러나 대부분의 물이 벽을 통해 스며 나와 집밖으로 흘러서 내 집 벽에는 약간의 자국만 남았을 뿐이었다. 밖에서 보니, 물이 흘러 나온 구멍이 있었다. 만약 그

물이 집안으로 흘러들었다면 정말 골치 아팠을 것이다. 나는 이번에도 도와 주신 스승님께 매우 감사드린다.

내가 칭하이 스승님을 따라 수행을 시작했을 때부터 스승님께서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돌봐주고 계시다는 것을 느껴왔다. 스승님께서 내게 베풀어주신 은혜와 은총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 스승님에게 보답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심으로 수행하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라 보다 부지런히 명상하는 것뿐이다.

스승님의 힘이 두 어머니를 천도시키다

중국 본토 동수(원문 중국어)

젊은 시절 나는 물질적 부에 대한 욕망은 없었지만 영적 고뇌와 해탈에 대한 열망으로 매우 괴로웠었다. 영적인 공허감과 갈증을 느끼던 그 무렵 우연히 축복의 감로수인 스승님의 가르침을 접한 나는 주저 없이 감로수에 뛰어들어 마음껏 들이마셨다.

나는 곧 방편법을 배워 수행하면서 몸밖을 빠져 나와 공중에 떠 있는 체험을 했는데, 그때 어둡고 밝은 길을 보았다. 내가 밝은 길 쪽으로 걸어가 장엄한 건물이 있는 아름다운 곳에 도착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였다.

어머니는 매우 행복해 보이시고 많은 얘기를 하시며 내게 머무르라고 하셨다. 이전의 꿈에서 어머니는 언제나 아무 말도 없이 우울한 얼굴을 했었기에 그 체험은 스승님께서 어머니를 천도시킨 사실을 증명하는 듯했다. 꿈속에서 우연히 고개를 돌리자 의붓어머니도 보게 되었고 나는 그녀가 왜 거기에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다. 나중에 입문한 다음, 단체명상에 참석했을 때 한 사저가 갑자기 내게 "당신은 부모님이 몇 분이세요?"라고 물었다. "저는 아버지, 의붓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의붓어머니가 있어요. 나는 의붓어머니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건 아버지와 정당하게 결혼한 게 아닌 데다 그로 인해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떠났기 때문이었죠. 내가 예닐곱 살 때 아버지와 의붓어머니의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양쪽 부모님의 사랑을 잃고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2년 후 어머니는 재혼을 하셨고, 돈을 내고 날 의붓아버지 집으로 데려 오셨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붓어머니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사저가 말했다. "어쨌든 그녀는 당신을 양육했고, 당신은 그녀에게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그녀의 친절에 보답해야 해요." 나는 즉시 전에 본 체험을 떠올리고는 큰 감동을 받았다. 스승님은 나를 대신해 의붓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해 그녀를 천도시켜 주셨던 것이다. 이것은 입문 후에는, 적어도 5대나 6대 조상이 천도된는 스승님의 약속이 전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증거이다. 아무 혈연 관계도 없는 나의 의붓어머니까지도 나를 통해 이로움을 얻으신 것이다.

우리에게 이처럼 위대한 스승님을 보내 주신 신의 은총에 깊이 감사드린다. 살아 계신 진정한 스승만이 그런 헤아릴 수 없는 힘과 자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스승님께 항상 감사하며 스승님이 정말 그립다. 우리 모두가 황금시대에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관음법문을 신실하게 수행해 스승님을 따라 우리의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내면의 체험을 강요하지 말라

청하이 무상사/ 2002. 8. 25.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동수들과의 화상회의(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48

질문: 전 열심히 명상했지만 단 한 번 빛을 보았을 뿐입니다. 빛을 보기를 원하면 결과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빛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건 영적으로 진보하지 않을 것이란 뜻입니까?

스승님: 아닙니다. 빛을 보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요구하지는 마십시오. "난 빛을 매일 봐야 해, 매번 빛을 봐야 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초보자인데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훌륭하게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 이완하고 신실하게 계속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매일 빛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래 전부터 신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교육을 받아서 속세의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으면서도 신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 깜짝 놀라거나, 믿지 않거나 아니면 악마의 속임수나 환상이라고 여깁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을 볼 수 없으며 절대로 신과 접촉할 수 없다고 교육받고 세뇌되어 왔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신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을 볼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입문할 때 즉각 깨달음을 얻고 빛이나 소리, 심지어 내면으로 혹은 물질적인 형태로 화현된 신을 보며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신과 연결되고서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계속 분투를 하며 "그건 진짜가 아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보가 더딘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에 부지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지 두뇌가 잘못되고 거짓되며, 부정적인 정보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명상을 많이 해서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과 불신의 에너지가 서로 대립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 이완되고 신의 모습을 더 자주 즐기게 될 것입니다.

기대는 수행 진보를 방해한다

청하이 무상사/ 2002. 8. 25.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동수들과의 화상회의(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48

질문: 영적인 수준과 수행을 한 기간과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왜 저는 11년 동안 수행을 했는데도 높은 수준의 빛과 소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스승님, 저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당신은 항상 기대하는 것 같군요. 그것이 이유입니다.

당신의 기대가 수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 1년 동안 명상하면 1세계에 가게 될 거야, 2년간 명상하면 2세계에 갈 것이고, 3년 명상하면 3세계에 가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은 두뇌의 생각대로 지시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비교하는 모든 것은 두뇌의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야의 환상이 작용하는 것이지 진정한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은 두뇌로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 자신의 진보를 방해합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되십시오. 너무 많이 계산하고 사업하듯이 하지 마세요. "좋아. 난 10년 동안 명상했으니 이런저런 것을 받아야 해." 우리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십시오. 부모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상을 줘야 하는지 알 겁니다.

이완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더욱 즐기게 될 것입니다. (대중 박수)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습관이 있어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우리 기호에 맞는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요구하며, 남편과 아내에게도 우리 의견에 따라 이런저런 일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밖에 나가면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요구하지요. 만약 직장에서 책임자나 관리자, 사장 같은 높은 지위에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데 익숙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도 그와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뇌로 계산하는 식으로 일하는 한,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처럼 이완하세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지 말고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체험이 올 것입니다. (대중 박수) 아이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결코 알지 못하지만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해 둡니다.

인류가 영적으로 각성됐을 때 지구는 최고의 상태를 유지한다

칭하이 무상사/ 1993. 3. 28.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343

질문: 사랑하는 스승님, 어떤 명상 수행자들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는 대 재난을 비전으로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정말인가요?

스승님: 만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내면의 위대한 구원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신은 생명을 구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창조된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우리가 보존하거나 회복시킬 창조의 힘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것은 파괴될 것입니다.

마치 집과 같습니다. 집을 잘 짓고 집을 수리할 온갖 페인트와 도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제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저절로 무너지거나 파손될 것입니다. 만일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

에겐 비상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구가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위험에 처하겠지요.

따라서 나는 여러분에게 최소한 자신만이라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단순하며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이완하면, 모든 힘과 과거에 알았던 모든 지식과 삶을 다루는 모든 역량이 여러분에게 생겨납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메시지를 따릅니까? 그들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 묻기만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가 우리의 '종말' 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이 세상을 구하고 싶다면, 최고의 힘으로 공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되찾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천사들에겐 그들의 세계가 있으며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는 지구보다 더 진보된 다른 곳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부처는 불국토로 가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기 있는 우리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이러한 재난들이 두렵다면 깨달으십시오. 집을 수리하고, 이 세상의 도덕적 기준을 더 높이 끌어올리고, 더욱 깨달은 행성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령 내가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예,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이 너무 부패해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된다면, 신은 세상을 없애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것입니다.

먼저 내면의 평화를 구하면 세계 평화가 온다

칭하이 무상사/ 2002. 8. 25.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동수들과의 화상회의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48

질문: 스승님께서는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축복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은, 우리 중 일부는 신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악역을 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그런 이원성이 존재하는 한 어떻게 세계 평화가 이뤄질 수 있습니까?

스승님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세계 평화를 요구하는군요. 그건 물론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깨닫지 못하거나 여전히 악하거나 무지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부분을 연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즉각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태어나서 평생 동안 그것을 찾고 스승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스승들과 그들의 높이 깨달은 제자 같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말하는 '우리' 는 나 자신과 여러분, 모든 스승들, 깨달은 존재들, 높은 수준의 제자들, 낮은 수준의 제자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아직 높이 깨닫지 못한 것뿐이니까요. 난 여기 앉아서 여러분에게 "이봐요, '내' 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왔고, 당신들은 성스럽지 않아요."라는 식으로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악역을 하러 왔다고 말할 때도 나 자신을 포함시키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왔다고 말할 때도 나 자신을 포함시킵니다. 왜냐하면 신의 세계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이생에서 아주 높이 깨달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천국에서 맹세하고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다시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내려와서 빨리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무지 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아니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맹세했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은 그런 목적으로 존재하기에 세계 평화가 이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 평화는 우리 내면에, 성인들의 내면에 항상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단체 안에요. 세계 평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세계 평화는 한 시대에, 혹은 다른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인류는 진화해야 하므로 언제나 각 단체간에는 약간의 마찰이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황금시대의 절정을 경험할 테지만 때로는 다시 암흑기로 접어들 것입니다. 이것이 진화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내면과 내적인 세계를 평화롭게 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으며 그런 식으로 세계도 이로움을 얻습니다. 계속 무지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은 우리의 고양된 에너지로 인해 깨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000년에는, 즉 앞으로 천 년 후에는 세계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건대, 세계 평화를 꼭 이룰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세계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 해도 세상의 어떤 곳이나 어떤 지역, 혹은 세상의 3분의 2는 세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질문자: 예.)

지옥보다는 낫습니다. 그보다는 훨씬 낫지요. 진실을 말하자면, 세계 평화는 이미 존재합니다. 단지 사람들의 이해와 개념이 다른 것뿐이지요. 나에게 있어 세계 평화는 존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내면과 가정과 단체에는 세계 평화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생각하지요.

질문: 예.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맡은 바를 해야 하는 것이군요.

스승님 : 예. 우리는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바깥 세상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때문에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천국에서 살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지옥에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어떤 이들은 매일 머리 속에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며 분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계 평화가 존재한다 해도 한 순간도 평화롭지 않을 것입니다.

스승님의 치유는 신의 축복이다

칭하이 무상사/ 1999. 5. 24. 헝가리 부다페스트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52

질문: 스승님께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스승님: 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치유하게 할 뿐입니다. 내가 치유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모두 신이 하신 일입니다. 나는 단지 도구로써, 신이 나를 통해 당신이 선택한 사람에게 신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할 뿐입니다.

매일 매 순간 영적인 보물을 쌓으라

청하이 무상사/ 1992. 3. 22. 한국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233

질문: 현대인들은 매일 일하러 가며, 직장에서는 명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일하는 동안 명상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스승님 : 예, 시간이 날 때마다 눈을 감고 지혜안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명상입니다. 매분, 매초가 여러분의 보물창고에 더해집니다. 화장실에서나 기차와 버스, 비행기 안에서도 명상할 수 있고, 잠자기 전과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명상할 수 있습니다.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텔레비전을 적게 보고, 전화 통화 시간을 줄이고, 신문 보는 시간을 줄이면 더 많은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줄이세요. 때로 우리는 친구들과 마시고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나누며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만일 하루 종일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쓸모 없는 것들인지 알 것입니다. "날씨가 좋네, 그 옷들이 참 예쁘다, 저 차가 최근 유행이야." 이런 것들은 우리의 지혜를 발달시키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 없다면 사람들을 만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의 지혜를 단련할 시간이 많아지고, 내면으로 들어가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각 영혼은 자신의 여정을 결정한다

청하이 무상사/ 1999. 5. 24. 헝가리 부다페스트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52

질문: 만일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몇 분, 혹은 몇 시간 만에 죽거나, 어떤 사람이 정신지체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스승님: 영혼이 이 세상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은 수없이 많습니다. 신은 그 영혼이 어떤 일을 하도록 안배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별화된 영혼은 신에 이르기 위해서 때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기를 선택합니다. 또한 부모의 내면에 사랑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태어난 후에 바로 죽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신의 안배는 우리가 말로 설명하거나 손가락으로 세기가 불가능하지만 모든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최상의 안배입니다.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로부터 얻은 무한한 이로움

리 아이 포에크 사형/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원문 영어)

사랑하는 스승님께,

스승님, 제가 관음법문을 수행한 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날마다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제자들에게 최고의 법문과 깨달음을 주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뚜렷한 이유 없이 가끔 많은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승님의 강력한 힘과 진정한 사랑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질 세계와 천상의 꿈을 통해 당신의 현존과 사랑을 내면으로 체험했으며 그것은 저의 생각, 행동, 삶의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면에서 저 자신이 영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스승님, 당신을 만나 최고의 지혜를 알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축복입니다. 스승님을 직접 뵙진 못했지만 스승님에 대한 저의 믿음은 계속해서 커져만 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회만 있다면 스승님을 간절히 뵙고 싶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스승님을 꼭 만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신심과 스승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승님의 존재와 스승님의 가르침은 저와 가족, 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칭하이 스승님, 제 가족, 친척, 친구들과 저는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평화롭게 살고 스승님께서도 행복한 황금시대 2년을 맞으시길 기원하며…

아이 포에크 드림

감로법어

영적, 물질적으로 세상에 봉사하자

칭하이 무상사/ 1993. 10. 29. 미국 L.A.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388

여러분의 일을 완벽하게 하십시오. 최소한 자신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일을 하고 지혜를 사용하십시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무엇이든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기운을 영적으로 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물질적 그리고 다른 여러 측면에서 세상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모든 차원에서 우리는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완전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길 잃은 양들이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다

코스타리카 뉴스그룹

2003년 8월 태평양의 코스타리카 해안을 항해하던 한 중국 배가 엔진에 문제가 생겨 푼타레나스 항구까지 견인되었다. 승무원이 엔진을 수리하는 동안 사고가 일어났고 코스타리카 당국에선 그 배를 억류시켰다. 이 과정에서 선장이 굶주림과 폭풍으로 고통받는 어울락 사람들과 승무원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다.

2003년 12월 코스타리카 동수들은 지역 신문에서 그 선원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필요한 생필품과 스승님의 뉴스잡지 및 견본책자를 가지고 매주 그들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2004년 3월 푼타레나스 시민들과 신의 무소부재한 힘 덕분에 그 중 7명의 청년들이 정부로부터 거주권을 얻게 되어 그곳에 살면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도에는 그와 유사한 많은 배들이 푼타레나스항에 도착해 다양한 국적의 젊은 근로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한 번은 그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 경찰은 3명의 어울락 젊은이들을 체포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죄목으로 본국 추방령을 내리기도 했다.

2004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어울락 젊은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면서 동수들은 추방될 선원들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고 감옥에 있는 젊은이들을 방문해 생필품 및 음식과 함께 스승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다. 그들은 이 깜짝 방문에 매우 기뻐하며 따뜻하게 동수들을 맞았다. 언어의 장벽에도 선원들과 동수들은 친밀한 유대감을 느꼈다. 그들이 간단한 중국어와 스페인어로 스승님의 출판물들을 좀 더 읽어보기를 원해서 동수들은 다음 방문 때 어울락어로 된 『즉각 깨닫는 열쇠』 시리즈와 뉴스잡지 몇 권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이 선물을 받고 행복해했고 그 순간에 동수들은 스승님 가르침의 헤아릴 수 없는 가치에 비하면 자신들의 물질적 도움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코스타리카를 떠나기 하루 전인 2005년 1월 23일 동수들은 다시 감옥을 방문해서 많은 선물과 어울락에 있는 가족에게 줄 재정적인 도움, 스승님의 사랑과 출판물들을 더 많이 가져다 주었다. 떠나기 전에 그들은 스승님에 대한 사랑의 상징으로써 장미가 그려진 하트 모양의 아름다운 나무상자(사진 참고)를 만들어 선물하고, 각자 스승님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썼다.

이 젊은이들을 처음 방문했을 때 동수들은 어울락 선원들의 경우처럼 중국 배를 타고 코스타리카에 도착해 범죄로 감금된 두 명의 중국 젊은이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 중국 선원들은 자신들이 무고하다고 하면서 도와 줄 사람도 없고 스페인어도 할 수 없는 상태라 법원에선 통역할 변호사가 나타날 때까지 사건심리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2004년 12월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 그들은 그 전에는 한밤중까지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동수들을 만난 그날 밤에는 아주 빨리 잠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동수들을 만난 이후로 시간이 아주 빨리 지

나가고 이전에 느꼈던 불안감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방문 후 동수들은 그 중국 선원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들은 스승님의 책들을 읽고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지고 어린 시절 이후로 혼란스러웠던 많은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았다며 지금은 정신적으로 이완되고 충만함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또한 매일 밤 자기 전에 스승님의 성스러운 이름을 암송하는데 그러면 바로 몸이 붕 뜨는 것처럼 느껴지며 깊이 잠든다고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해서 다시 태어난 것처럼 느끼게 해주시는 스승님께 끊임없는 존경과 감사를 표현했다. 그들의 우울함은 사라졌고 대신 새로운 용기가 생겨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스승님께 자신들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해달라고 동수들에게 부탁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때 자신들의 삶에 온정을 전해준 관음 가족들에게 고마워했다.

보통 감옥에는 전화를 걸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 전화는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그날 교도관들은 평소와는 다르게 그들이 감옥에서 전화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통화 중에 그 젊은이들은 다시 자신들의 감정을 토로하며 스승님께 감사하고 지난 날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반성했다. 그리고 동수들에게 즉각 깨닫는 열쇠 시리즈의 나머지 책들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사람들이 모두 스승님의 책을 읽는다면 세상은 평화롭고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화는 교도관이 그들을 데리고 갈 때까지 30분 이상 계속되었다. 동수들은 그들의 목소리에서 내면의 기쁨과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은 정말 위대하다!

감사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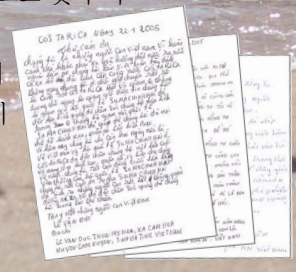
(원문 어울락어)

2005. 1. 22. 코스타리카

친애하는 칭하이 스승님께

저희는 어울락의 아들들로 어려운 상황 때문에 고향을 떠나 어선을 타고 외국으로 돈을 벌러가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타이완 해안을 떠나 코스타리카 항구에 정박해 있던 어느 날, 외출했다가 불행하게도 문제가 생겼고 코스타리카 경찰은 저희들을 6개월 간 감금했습니다.

수감 중에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동수들이 저희들의 감금 소식을 듣고 도우러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사탕, 쿠키, 옷을 가져다 주고 재정적인 지원까지 많은 도움을 주며 진심으로 돌봐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틀 후에 어울락으로 송환되는데 오늘 협회 동수들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옷과 사탕, 쿠키와 금전적인 선물을 가지고 다시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협회로부터 받은 사랑에 매우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멀리서 감옥까지 찾아와 우리를 돌봐 주고 도움을 준 훌륭한 자녀를 두신 칭하이 스승님께 감사 드립니다.

어울락 시민을 대표하여
Le V.D.어울락

역경이 스승을 찾는 완벽한 계기가 되다

예비입문자 히스/ 호주 바이런 베이 · 노던리버스 (원문 영어)

진리를 갈망하고 있던 히스는 최근에 경범죄를 범한 까닭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그곳에 있는 동안 친구 안젤라와 마크를 통해서 스승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큰 위안을 받았다. 그들은 그에게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왔습니다』라는 책을 주며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해 주었다. 다음은 히스가 안젤라와 마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다.

안젤라와 마크에게

나는 잘 지내고 있고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문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고무되어 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해 줘서 너희에게 고맙게 생각해. 내가 일주일 동안 고기를 먹지 않고 의사 선생님에게 제대로 된 채식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는 것을 알면 너희들도 기뻐할 거야.

며칠 전 명상을 했는데 방에서 나와서 시계를 보니 30분이나 지나서 놀랐어. 와! '참을성이 없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명상을 하다니! 나도 내가 겪고 있는 변화가 무척 놀라워. 하지만 나는 많은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드디어 너희가 보내준 책을 받았어. 그리고 지금은 스승님의 사진도 가지고 다닌다. 내가 그분을 스승님이라고 불러도 될까? 나는 정말 그분이 스승이시라는 걸 믿는다. 그리고 스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을 배우고 실천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어. '누군가 우리를 고향으로 데려간다'는 건 흥분되는 일이야. '난 스승님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했던 안젤라 너의 말처럼 말야. 그리고 너희들이 보내준 책을 도서관에서 발견했어. 물론 빨리 읽을 수는 없었지만. 입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할까? 담배를 끊고 오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알아.

솔직히 말하면 명상만큼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명상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나는 항상 즐겁게 생활하고 있어.

지금은 이 정도까지야.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

히스로부터

인욕은 성인의 품성

칭하이 무상사/ 1995. 1. 8.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466

이 책의 제목은 '인욕은 성인의 품성' 입니다. 참을성이 강한 사람이 성인이라는 뜻이지요. 내가 보기엔 이런 생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인입니다!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밥 몇 공기와 옷 몇 벌을 얻기 위해 매일 땀과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은 함께 지내면서 서로를 견뎌내지요. 직장 상사와 동료를 견디고, 배우자, 가족, 친구, 원수들을 참아내야 합니다. 오, 이런 모든 것을 참다니, 정말 성인의 품성이에요! 내가 만일 신이라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신으로 임명할 겁니다.(대중 박수) 왜냐하면 이곳에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내력을 요구하기 때문이지요. 자, 인도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많은 인도인들이 수행을 하지만 아마 나와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옛날 인도에서 수행을 갈망했던 한 남자가 깨달은 스승을 찾아가 입문을 청하며 신을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스승은 그의 신실함에 감동해 입문을 허락했으며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명상하고 채식을 하고 오계를 지키라고 시켰습니다. 또한 빨리 진보하고 싶다면 동굴에서 하루에 한두 끼만 먹으며 명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속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주의력을 흩트리지 말라고도 했지요. 세속에서 계속 일하다 보면 많은 곤경에 처해 수행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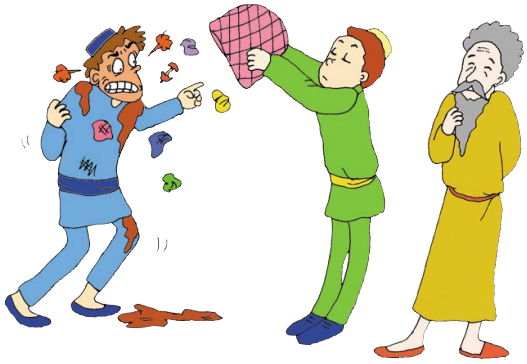
옛날 사람들의 삶은 보다 단순해서 누군가 동굴에 들어가 명상하고 싶으면 그냥 가면 됐습니다. 수많은 걱정거리가 있는 우리 현대인들과는 많이 달랐지요. "아직 자동차 대출금을 다 갚지 못했는데", "이제 곧 카드 납기일인데", "공과금을 못냈네! 오, 이럴 수는 없어!" 옛날에는 명상하러 동굴로 가려면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됐어요, "난 떠날 거야. 6개월이나 일 년 후에 돌아올게. 그 동안 매일 음식을 좀 가

져다 줘." 아주 간단했습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려고 하면 처리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수많은 공문서에 묶여 꼼짝도 못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만 제약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라도 집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역시 제약을 받아요. 이 행성에 사는 동안은 수많은 서류를 작성해야 할 거예요. 그 서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어디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한 거지요.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예요. 정부는 여러분의 비자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쉽게 여러분을 찾아냅니다.

다시 이 인도 남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스승은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일 년 후, 자네가 명상을 아주 잘하고 좋은 성과를 얻었을 때 나를 보러 오게나. 돌아오거든 우선 강에서 세 차례 목욕을 하고 깨끗이 씻은 후에 여기로 오게. 그러면 내가 자네의 수행의 결과를 한 번 보겠네." 그는 스승의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산 속에 있는 작은 동굴을 찾아 매일 열심히 명상했지요. 하루에 간단하게 식사 한 끼만 먹고요.

일 년이 빠르게 지나가고 어느 날 스승은 다음날 제자가 올 것을 알고 방을 청소하던 시자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동굴에 갔던 제자가 돌아올 것이다.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도착하거든 오늘 청소하면서 모은 쓰레기들을 그에게 부어버려라." 물론 시자는 스승의 명을 따라야만 했어요. 다음날 그가 돌어왔을 때 그는 이미 세 차례 목욕을 하고 온 몸이 티끌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게다가 일 년 간 명상하면서 하루에 한 끼만 먹었기 때문에 매우 성스러웠지요. 누구라도 몇 마일 밖에서 그의 성인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을 만나 자신의 수행 체험을 얘기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문에 들어서자마자 시자가 그에게 쓰레기를 부어버렸습니다. 와!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몹시 화가 나서 시자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이런 엄청난 업장을 짓다니!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일 년 동안 안거하다가 이제 방금 돌아왔어! 내가 성인인지 몰라? 어떻게 감히 나한테 쓰



레기를 부을 수 있어?"(스승님과 대중 웃음) 그러고는 시자에게서 빗자루를 빼앗아 시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시자가 서둘러서 그의 스승 뒤로 숨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시자를 잡지 못하고 그냥 강가로 돌아가서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스승을 보러 와서 말하기를, "스승님, 저는 일 년 간 명상을 하고 스승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언제 제가 신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자 스승이 대답했어요. "좋아! 그러나 자네는 여전히 마음과 감정을 완전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 이성을 잃었고 사람을 때리려고 했네. 사실 내 시자가 잘못하긴 했지만 자신을 보게나! 마치 호랑이나 독사처럼 굴었지! 자네는 시자를 쫓아가서 때리려고 했어. 이런 식으로는 신을 볼 길이 없네. 동굴로 돌아가서 참회하고 일 년 간 더 명상하게." 그러자 그 제자가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제 무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히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동굴로 돌아가 매우 진지하고 부지런히 명상했습니다.

다시 일 년이 흐르고 스승은 또 시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일 그가 동굴에서 나와 목욕을 한 후 여기로 다시 올 것이다. 문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들어오면 요강의 오물을 부어버려라." 지난 번에는 쓰레기였지만 이번에는 오물이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밤에는 요강을 사용했습니다. 시자는 복종해야 했기 때문에 문에서 제자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시자는 요강에 있던 내용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제자의 머리 위에다 부었어요!(대중 웃

음) 오물의 악취가 하도 심해서 그의 성인 향기가 다 가실 정도였습니다.(스승님과 대중 웃음)

다시 그 남자는 격분해서 소리를 질러댔죠. "너 잡히기만 하면 가루가 될 줄 알아! 그 더러운 것들을 신성한 내 몸에다 붓다니! 나는 이미 2년 동안이나 명상했다고! 하루 스물 세 시간 명상했고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 그런데 감히 내게 그런 짓을 하다니!" 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는 힘을 다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시자를 잡지 못한 채 결국 포기하고 강으로 돌아가 다시 씻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스승에게로 돌아가 말했어요. "스승님, 저는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다시 일 년 동안 명상을 했고 계율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동굴에는 아무도 없었으므로 그가 파계하도록 부추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지요.(대중 웃음) 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매일 저는 참깨가루와 현미, 강물만 좀 먹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이라야 신을 볼 수 있습니까? 스승님께서는 제가 일 년 더 명상하면 신을 볼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명상한 지 이미 2년이 되었는데 왜 아직 신을 볼 수 없는 겁니까?"

스승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직도 자기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네. 시자가 자네 몸에 오물을 좀 부었다고 미친개처럼 날뛰었지. 그건 어제 먹은 차파티(인도식 팬케익)에 불과한데 말이야.(대중 웃음) 그런데 자네는 그를 쫓아가며 소리 지르고 협박했지. 성인이 그런 행동을 할 것 같나? 그런 식으로 신을 볼 수 있나?" 그러자 제자는 매우 부끄러워져서 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확실히 잘못을 고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가서 일 년 동안 명상하거라. 하지만 다음 번에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제 더 이상 가르치지 않겠다. 신도 너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니 부단히 경계하거라!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그는 동굴로 다시 돌아가서 명상했습니다. 매일 성실하게 기도와 명상을 했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신을 보고 싶어했으니까요.

어느덧 또 한 해가 흘렀고 그 스승은 다시 해묵은 속임수를 쓰려고 했습니다. 스승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면서 오히려 자신은 제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짓궂은 일들을 했지요. 제자는 일 년간의 선을 어렵게 마치고 이제 자유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쁘게 동굴을 나와 정결하게 목욕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스승은 쓰레기와 더러운 오물을 이번에도 제자에게 갖다 부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스승이 그렇죠? 그 스승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선량하고 공손하며 점잖게 행동하라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공격하지 말고, 타인을 돌보고 행복하게 해주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스승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나요? 하지만 스승 그 자신은 그런 나쁜 짓들을 했지요! 그는 제자에게 정말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정말로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죠! (스승님께서 웃음)

이번에도 그 스승은 시자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일 동굴에서 그 제자가 돌아올 거야. 지붕으로 쓰레기와 오물을 가져가서 그가 들어오면 오물들을 부어버리거라." 그래서 시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제자는 마음을 조절할 수 있어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자기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두 번의 선례를 겪어서 더 이상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대중 웃음) 아마도 이 스승은 그렇게 많이 깨닫지 못했나 봅니다. 항상 같은 시험을 한다면 제자는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지요. 제자가 아주 무지하거나 마장에 걸렸다면,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모든 것을 잊고 자신의 좋은 품성과 친절한 태도까지도 잊어버리지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 제자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굳은 결심과 좋은 기억력이 있었던 것 같군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다시 뭘 뒤집어쓰게 된다면, 그가 할 수 있는 건 다시 목욕하는 것뿐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아마도 더 영리해진 것이겠죠. 하지만 정말로 마음을 조절했을까요?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시

자가 오물을 부었을 때, 그는 화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시자에게 감사했습니다.(대중 웃음)

칭하이 무상사도 똑같은 비법을 가르치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야단치거나 때릴 때, 그들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치지요?(대중 대답: "예.") 나는 그녀가 이런 말을 여러 번 한 걸로 아는데, 여러분은 그녀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싶어하나요? 이 인도 제자는 시자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정말 마음을 조절하게 된 것 같군요. 그는 겸손히 말했습니다. "사형, 정말 나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만일 사형이 날 이렇게 대접해 주지 않았다면 난 분노와 나를 감싸던 부정적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로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는 시자에게 세 번 절을 했고 스승을 보러 갔습니다.

바로 그때 스승은 그에게 진짜 입문을 시켜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은 방편법이었을 겁니다. 시자를 대하던 태도를 바꾸고 나서야 정식 입문을 받은 것이죠. 입문식에서 그는 즉각적으로 내면의 빛과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을 본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지혜어록

최상의 치료법

칭하이 무상사/ 1994. 9. 8. 일본 나리타 공항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444A

천국에서는 약이 아닌 빛으로 병을 치료합니다. 미래에는 우리도 이렇게 빛으로 병을 치료할 겁니다. 지금도 음악 같은 소리로 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이 법문은 빛과 소리의 명상법으로 자연스럽게 고통과 억압을 줄이며 결국에는 사라지게 합니다. 본래 우리는 아주 지적인 존재이지만 이 세상에선 쉴 시간도 없이 많은 압박을 받습니다. 쉴 시간이 있어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소풍도 가고 다른 것들도 해보지만 오히려 더 피곤하고 불편하기만 하지요. 그런데 수행을 하게 되면 빛과 소리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혜도 생기게 됩니다. 고요함 속에서 본래 우리의 지혜를 찾을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점점 더 좋아지게 됩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보통 사람들은 갈 수만 있다면 며칠간 바다나 산으로 가서 재충전하고 다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일주일씩 휴가를 가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휴식을 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루 두 시간 반의 명상은 우리가 갖는 매일의 휴식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구하기도 합니다! 빛과 소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등을 정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수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젊고 더 편안해지며 대부분의 질병이 사라집니다.

한국 소식

형제애로 불우한 동수들을 돕다

서울 & 부산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병석에서 지원금을 전달받고 스승님의 보살핌에 감사를 드리는 사저.

2004년 겨울, 자비로운 스승님께서 동수들에게 어려운 형편에 처한 다른 동수들을 도우라는 사랑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오셨다. 이를 계기로 한국 동수들은 도움이 필요한 동수를 수소문하여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서울 센터의 동수들 중에는 두 명의 사저가 병원 치료와 경제적인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다. 한 사저는 여러 차례의 수술로 인한 건강 악화로 채식 식당을 그만두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남편이 직업이 없어 그 동안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왔던 그녀가 일을 그만두게 되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 그러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체명상에 계속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수들은 사저의 힘든 상황을 알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비입문자인 남편은 스승님께 계속 기도를 드렸다. 그러던 2005년 3월 초, 위에 언급된 스승님의 지시에 따라 시후 센터에서 그녀에게 수술 지원금으로 미화 5천 달러를 보내 왔다. 사저와 남편은 스승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에 깊이 감사하며, "스승님께 감사한 마음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모든 것을 스승님께 맡기고 나니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는군요."라고 말했다. 그 후 사저의 남편은 방편법을 배웠다. 서울 동수들은 이들 부부를 재정적으로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가 함께 명상하고 있다.

또 한 명의 사저도 혼자서 자녀를 키우면서 오랜 지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가게를 운영해 오다 경기 불황으로 몇 달째 가게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서울센터 동수들은 지원금을 전달해 사저가 가게를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도와주었고, 그녀는 도움에 무척 고마워했다.

두 사저를 돕는 이외에도 서울 동수들은 지난 추석에 지원금을 모아서 용산구의 소년소녀가장 열 두 명에게 생활 보조금을 지원했다. 성금은 어린 소년소녀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담당 공무원을 통해 전해졌다.

11월 초순, 부산 센터의 한 신실한 사형은 2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후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그의 경제적 사정을 염려한 부산 동수들은 그가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했다. 이제 그는 건강을 되찾아 부산 센터 단체명상에 신실하게 참가하고 있다.

11월, 비슷한 시기에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한 부산 사저가 눈 수술을 하게 되었다. 게다가 살고 있는 집도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 사정을 알게 된 동수들은 그녀의 생활비와 회복을 돕기에 충분한 금액을 지원해 주었다. 또한 건축업에 종사하는 몇몇 동수들이 친절하게도 그녀의 집을 개축하여 아름답고 말끔하게 단장해 주었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고, 그녀는 동수들의 사랑에 가슴 벅차했다. 사저는 자신의 삶에 생긴 이 기적에 대해 스승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 집이 마치 천국 같아요!"라고 기뻐했다. 그녀는 동수들을 초대하여 정성을 다해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다. 그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사저와 그 가족들이 보여준

신실한 환영과 접대에 아주 즐겁고 감사에 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일을 통해 부산 동수들은 어려움에 처한 동수들을 적절한 시기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와주려면 평소 서로의 안위를 살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시 도움이 필요한 동수가 있는지 찾아보더니 한 신실한 사저가 오랫동안 단체명상에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몇 달간 몸이 많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했고, 그 결과 센터까지 올 교통비가 없어 단체명상에 참석하지 못했다.

의논 끝에 동수들은 그 사저가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향후 6개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기를 결정하며 그 사저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정기적으로 단체명상에 참석할 수 있기만을 희망했다.

부산 동수들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우며 사랑과 자비에 대해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었다. 동수들은 이 겸허한 천사들을 도울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이 도울 수 있기를 기원했다.

코스타리카 소식

희망의 무지개 – 수재민에게 펼쳐진 성스러운 연대와 사랑

코스타리카 뉴스그룹(원문 스페인어)

40년 만에 가장 심각한 폭우 피해를 입다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중앙 아메리카 국가들은 전형적인 열대지역으로 매년 우기 동안 많은 비가 내린다. 그런데 2005년 1월 11일, 코스타리카 대서양 연안의 리몬(Limon)과 카리브 지역은 40년만의 강한 폭풍우로 예년보다 많은 지역이 침수되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많은 이재민이 생겨났다.

몇 시간 만에 강물이 범람해 모든 주거지와 경작지가 물에 잠기고 특히 벽지 지역의 토착민들이 고립되었다. 일부 지역의 사람들은 지붕 위에 갇혀 춥고 습기 찬 상태로 거의 일주일 간 바나나와 흙탕물만으로 생존해야만 했다. 이 기간 동안 마을을 연결하는 대부분의 다리들이 무너져 많은 주민들은 마을에 고립돼 지냈다. 언덕과 산에 사는 사람들은 산사태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재빨리 대피했다.

이번 재난에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가장 심각한 피해 지역을 방문했으며 즉시 일급 재난 경보와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

코스타리카 동수들의 상황 대처

코스타리카 동수들은 홍수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구호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재빨리 구호팀을 조직했다. 또한 일부 동수들은 국가 비상사태 위원회(NEC)를 방문해 위험 지역의 상황과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에 관한 정보를 얻어 구호 활동을 계획하는 동수들에게 전했다. 코스타리카 구호 팀이 구호 작업을 계획하고 있을 때 1월 15일 아침, 미국 LA센터의 동수 세 명이 스승님이 보내신 미화 4만 달

러를 가지고 도착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재민의 고통을 덜고 다른 구호 단체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지역들을 도울 수 있었다.

LA동수들이 도착한 후, 구호 팀은 수재민들에게 보급할 물품들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일가 친척들의 안위를 걱정해 많은 일용품을 거의 다 사버렸기 때문에 대부분 상점들의 식량과 물은 거의 바닥난 상태였다. 하지만 다행히 스승님의 도움으로 동수들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 중 물을 구하기가 가장 힘들었는데, 구호 팀은 수많은 전화통화 끝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물이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었다. 또한 홍수 피해자들을 돕고자 하는 동수들의 열의에 감동받은 가게 점원이 물을 코스타리카 센터로 수송할 차량과 방법에 대해 도움을 주었다.

저녁 무렵 구호 팀은 목록의 모든 물품을 구할 수 있었고, 1월 15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5인 가족이 4일간 먹을 수 있는 2,240개의 물품 꾸러미를 포장했다. 구호 물품에는 쌀, 검은 콩, 병아리 콩, 렌즈 콩, 스파게티, 목욕비누, 세탁비누, 황설탕, 양초, 성냥, 플라스틱 접시, 물을 살균하기 위한 염소, 마시는 물, 삽, 공책, 사탕 등이 들어 있었다. 포장을 마친 후 꾸러미는 40피트 컨테이너 두 대에 조심스럽게 옮겨졌다.

구호 팀이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나선 16일에도 폭우는 계속되었다. 동수들은 센터에서 230킬로미터 떨어진 리몬 지역의 브리브리와 탈라만카(Talamanca)로 향했고 가는 동안 내내 스승님의 힘이 함께해 동수들 모두가 스승님의 보호를 느낄 수 있었다.

브리브리로 가는 길

NEC에 의하면 코스타리카의 북부 지역의 탈라만카, 스타 계곡, 식사올라 강(Sixaola River) 삼각주 부근의 지역들이 가장 큰 홍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곳 주민들 대부분은 바나나, 코코아를 재배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원주민들이었다.

1월 16일 이른 저녁 무렵에 구호 팀은 브리브리에 도착해 적십자사의 다른 구호 팀들과 만나 최근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동수들은 구호 물자를 즉시 배분하고 싶어했지만, 밤에 그곳에 헬리콥터를 내리는 것이 위험하고 날씨가 아주 불안정했기에 불가능했다.

식사올라 계곡에 도움을 전하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구호 팀은 경찰 트럭과 여러 대의 작은 수송 차량을 제공받아 식사올라 강 남동쪽 거주 지역에 필수품들을 전해주었다. 스승님의 사진과 보급품을 받은 남녀노소 주민들은 고통과 고난은 잊은 채 오직 경외심과 축복감으로 감사의 웃음과 눈물을 보였다.

수레트카로 가는 길: 신이 모든 것을 안배하시다

브리브리로 돌아온 구호 팀은 탈라만카 지역의 부녀회장인 둘세리나 파에스 마욜가 여사를 만났는데,

그녀는 9일간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깊은 산 속의 거주민들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 중 수레트카(Suretka)는 홍수로 인해 마을 두 개의 다리가 무너져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학교나 마을 회관에 피신해 있었다. 파에스 여사의 말에 의하면 900가구를 위한 음식과 마시는 물이 필요했다. 그래서 길이 험하고 다리가 무너졌지만, 동수들의 긍정적인 태도와 열정은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으며 수레트카를 향하는 트럭에 계속해서 구호 물품을 실었다. 그것이 스승님의 뜻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던 17일 밤, 파에스 여사는 수레트카의 남자들이 도구와 삽으로 무너진 다리들을 보수해 마을이 다시 브리브리와 연결됐다는 매우 고무적인 전화를 받았다.

동수들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지만 관계당국은 아직 길이 험하기 때문에 밤에 운전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동수들은 계속 구호 물품을 트럭에 실었고, 트럭은 수레트카로 향할 준비를 갖췄다. 바로 그때 트럭 하나가 30명의 사람을 태우고 도착했다. 바로 무너진 다리를 연결한 사람들이었다.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번째 트럭에 재빨리 구호품을 가득 채워 결국 1,400개의 구호품 꾸러미와 2갤런짜리 물병 1,500개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었다. 모든 것을 스승님께 맡겼던 구호 팀들은 일이 다 잘 되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저녁 8시쯤 수레트카에 도착했을 때는 정전으로 칠흑같이 어두워서 구호품을 받으려고 모여든 주민들의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손전등을 들고 음식과, 담요, 물, 스승님의 선물이 든 꾸러미를 건내자 주민들은 아주 고마워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고 있었기에 동수들은 가져온 음식이 충분한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마을의 모든 가정이 구호품 꾸러미를 받았고 임무를 완수하게 된 구호 팀은 아주 만족스러웠다.

수레트카 구호작업에 참여하고 그날 밤 늦게 브리브리에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모여 앉아 크게 기뻐했다. 몸은 매우 지쳤지만 구호 작업 동안 스승님의 힘을 체험한 그들은 "신의 안배는 정확하고 스승님의 사랑은 무한하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이 작업에 동참했던 경찰과 운전사들은 구호 팀이 불평 없이 열심히 쉬지도 않고 일하는 모습을 보고는 매우 감동했다. 한 경찰관은 29년의 경찰 재직 기간 동안, 우리 동수들처럼 불행한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에게 구호품을 배분하고 걱정하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자원 봉사자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코스타리카 원주민 문화를 경험하다

1월 18일 새벽 동수들은 케콜디(Kekoldi) 원주민 마을로 향했다. 그곳 주민들은 고유의 방언으로 '주 기도문'을 노래하며 자비로운 칭하이 무상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 마을의 교사는 스승님의 사진을 액자에 넣어 학교 벽에다 걸기를 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 사람들이 스승님의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첫째는 그녀가 위대한 스승이시기 때문이고 둘째는 스승님께서 마을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셨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날 아침 구호 팀은 트럭에 구호품을 싣고 오후에는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사이에 있는 식사올라 부근의 한 마을에 구호품을 나눠 주었다. 모두 450가구가 축복의 구호품을 받았고 마을 주민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께 도움을 주신 스승님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다.

2005년 1월 19일, 지역 NEC가 설명한 원주민들에게 시급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동수들은 다른 구호 팀들보다 이틀을 더 머무르며 전기 톱과 선외 모터를 브리브리와 카베카(Carbecar) 원주민 지역의 개발위원회와 비상 위원회에 전달했다. 보트는 식량을 구하고 환자를 수송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고 전기 톱은 홍수로 쓰러져 길을 막고 있는 나무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장비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코스타리카에서의 구호 활동이 끝난 후, 코스타리카 원주민 문화·사회 발전 기금회는 브리브리 사원에서 홍수 피해자들이 신께 감사를 표하는 영적 의식(儀式)을 개최하고 동수들도 초대했다. 또한 그 단체는 마을 주민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이 담긴 비디오를 보도록 권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 받은 사람들

산호세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는 내내 LA동수들과 작별 인사를 하려는 듯 성스러운 상징의 밝고 찬란한 무지개가 함께했다.

이 구호 활동에 동참한 코스타리카와 미국 동수들은 스승님이 마지막으로 코스타리카를 방문하셨을 때 "여러분은 이 행성 수십 억 인구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라고 하신 말씀을 증명할 수 있었기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또 다른 행운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위 행사의 주요내용(활동)은 CTI TV 오락채널 '예술과 영성 제 138집'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hichannel/index.htm

(영어 + 중국어 자막)

(원문 스페인어)

FUNDEICO
코스타리카 원주민 문화 · 사회 발전 기금회

2005년 1월 22일

칭하이 무상사 귀하

존경하는 스승님께

가장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에 스승님께서 식량과 다른 원조 물품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코스타리카 브리브리의 탈라멘카 고지 주민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성령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고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기원하며 또한 저희에게 나눠 주신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더욱더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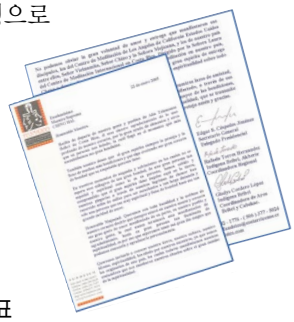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 저희는 위대하고 특별하며 영적인 스승님과 같은 분께 도움을 받는 기적은 기대하지도 않았으나 이번 일로 세상에는 위대한 성령이 파견하신 많은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호소하는 저희의 눈물 어린 기도는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아주 먼 곳까지 전해져, 자비롭고 깨달으신 스승님께서 사랑이 넘치고 자비로운 방식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당신의 놀라운 사랑은 저희 가슴과 영혼, 주민들, 저희 마을에 영원히 남을 것이며 항상 감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님을 직접 뵙고 감사할 날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영적인 길을 걸었던 조상들의 문화를 아직 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과 문화, 언어와 영성으로 스승님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어울락인, 중국, 멕시코인 등 다양한 국적의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센터의 제자들과 저희 나라의 스승님 제자들이 보여 준 위대한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에게 보여 준 그 친절과 영성, 사랑, 위대한 헌신에 대해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통해 스승님께서 전해 주신 우정과 사랑, 특별한 애정으로 형성된 이 관계가 '오래도록'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스승님과 제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스승님께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진정한 영적인 길을 계속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늘 신의 가호가 함께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아멘!



플러마 블랑카 원주민 전도사절단 대표
Msc, 카를로스 A. 차베리 게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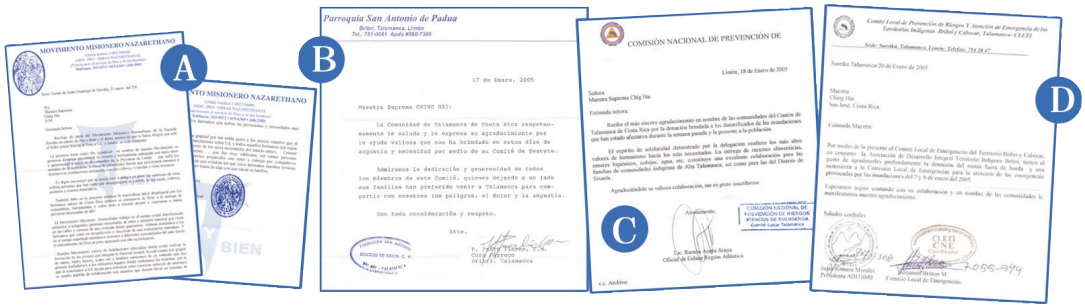
브리브리 아카베리 지역조정 대표
라파엘라 토레스 에르난데스

대통령 파견위원회 사무총장
에자르 S.세스페데스 하메네스

브리브리 탈라만카 고지 마을 공동 대표
돌세리나 파에스 마을가

재무장관, 코스타리카 원주민 문화 · 사회 발전 기금회 출납국장
아나 비르기냐 셀레스 파에스

브리브리 카베카 지역 조정자
글레디스 코르데로 로페즈



A) 코스타리카 나자레스 건설공사협회장 라파엘 안젤 보르본 바가스(Rafael Angel Borbon Vargas)의 감사 편지.
B) 코스타리카 리몬 탈라멘카 브리브리 파두아의 성(聖) 안토니 교구의 파비오 플로레스 신부(F. Fabio Flores)의 감사 편지.
C) 대서양 지구 국내 재해 방지 연락관의 감사 편지.
D) 탈라만카 카베카르 브리브리 원주민 위험 방지 지역 위원회(CLETE)의 감사편지.

스리랑카 소식

빛의 나라에 성스러운 광휘와 사랑을 전하다

한국 뉴스그룹 (원문 한국어)

2004년 12월 동남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쓰나미는 수많은 나라의 인명과 재산에 유례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 스승님의 범세계적인 구호 활동의 빛나는 모범을 본받아, 포모사 동수들이 구호 활동을 마치고 떠난 뒤 일단의 한국 동수들이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스리랑카로 향했다.(자세한 내용은 뉴스잡지 156호를 참조하세요.)

쓰나미에 관한 소식을 처음 듣자마자 즉시 한국 동수들은 도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마침 한국 사저의 스리랑카인 직장 동료가 이번 재난으로 온 가족과 집을 잃어, 동수들은 그녀에게 즉각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한국과 스리랑카에 있는 그녀의 친구들은 한국 동수들이 스리랑카로 구호 활동을 위해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고향이자 가장 피해가 심각한 지역 중 하나인 마타라(Matara)를 방문해 달라고 제의했다. 이 밖에 스리랑카 친구 중 한 명은 구호 팀의 통역을 자원했다.

한국 정부와 항공사들은 재난 지역으로 향하는 공식 구호 팀의 항공료를 75퍼센트 할인해 주었는데, 한국 동수들도 공식 구호 팀의 요건을 인정받아 이 할인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5년 1월 14일, 소방관과 약사를 포함한 31명의 동수들은 2톤의 구호 물품과 장비, 의약품과 함께 스리랑카로 향해 떠났다.

구호 활동의 순탄한 시작

1월 15일 이른 새벽, 구호 팀은

▲ 공항에서의 한국 구호 팀.

▶마타라로 떠나기 전 한국에서 가져온 구호 물품을 싣는 모습.

스리랑카 콜롬보 공항에 도착했다.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가 인쇄된 노란 조끼를 입은 동수들이 공항에서 구호 물품을 찾아서 싣는 모습은 스리랑카 국영방송인 내셔널 TV에 의해 촬영되었고, 이 뉴스는 5개 채널을 통해 방영되었다.

이른 아침부터 대기하고 있던 스리랑카 주택건설부 대표들은 동수들이 도착하자마자 간단한 환영식을 열어 주었다. 환영식 동안 찬드라시리 가자디라(Chandrasiri Gajadeera) 차관은 "스님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멀리 한국에서 도와주러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일로 피해를 입어 거주하시기 좀 불편하겠지만 여러분이 머물도록 제 집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신실한 불교신자이자 철저한 채식주의자인 가자디라 차관과 그의 보좌관은 우리 구호 팀이 모두 철저한 채식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기뻐했다. 다음 날 스웨덴 동수 부부가 스톡홀름 센터의 구호금을 가지고 구호 팀에 합류했다. 이렇게 해서 스승님의 완벽한 안배 속에서 구호 활동은 처음부터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마타라 지방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구호 팀은 차관 보좌관의 안내를 받아 여러 지역을 방문했다. 이번 해일로 스리랑카 북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해안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불교 사원들은 대부분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일례로 우리가 방문한 한 마을의 주민들은 그 지역이 완전히 물에 잠겨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지만, 그 지역의 사원은 겨우 몇 센티만 침수되어 사원 안에서 기도를 드리던 사람들은 모두 해일로부터 무사했다고 얘기했다.

찬드라시리 가자디라 차관.

1월 17일, 구호 팀의 첫 작업은 파괴된 가옥과 도로의 잔해를 치우는 일로 시작되었다. 주민들은 아직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다 청소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구호 팀의 헌신적인 노력에 주민들은 무척 고마워했고, 감사의 마음으로 코코넛을 따서 동수들에게 제공했다. 북반구에서 온 한국 동수들에게 코코넛은 완벽한 선물이 되었다!

잔해를 치우는 작업 동안, 마타라의 보건국장인 레카 라트나야케(T.Lekha Rathnayake) 박사가 작업 현장을 방문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파괴된 상황에서 주민들은 청소하고 복구할 마음 상태가 아닌데, 여러분의 복구 작업이 그들에게 큰 힘과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 웃음을 전해주다

해일 피해 지역의 많은 어린이들은 어린 나이에 부모, 형제를 잃어 마음의 상처가 깊었다. 그래서 구호 팀은 아이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어린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 이 자리에는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했다.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는 한 사저가 춤과 노래로 소년소녀들을 즐겁게 해주었고, 스웨덴 사형은 풍선 마술을 보여 주고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아이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신나하며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고 일부 아이들은 일어나서 춤추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행사가 끝난 뒤, 동수들은 옷, 과자, 장난감이 든 선물세트를 모든 아이들에게 나눠 주었다. 천진한 아이들의 웃음과 즐거움에 감동받은 마을 주민들도 보다 밝아지고 행복해졌다. 해일 이후 아이들이 진심으로 밝게 웃는 모습은 이 날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가자디라 차관도 이 행사에 감동하여 앞으로도 어린이를 위한 행사를 더 열어 달라고 부탁했고, 동수들은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18일, 구호 팀은 복구 작업을 위해 불도저 2대와 트럭 4대를 대여하고 중장비 운전기사도 함께 고용했다. 불도저는 큰 길 주변에 쌓인 쓰레기를 치웠으며, 동수들은 손수레와 삽 등으로 근처의 피해 가옥들을 청소했다. 동수들의 활기찬 복구 작업이 진행되자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고무되어 자신의 집을 스스로 치우고 수리하기 시작했다.

◀ 구호 팀은 보좌관의 안내로 해일 피해 지역을 돌아보았다.

청소 작업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스승님의 축복으로 충전된 동수들은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복구 작업을 수행했다. 부산 센터에서 온 한 사형은 예순이 넘었는데도 열심히 땀흘리며 일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려는 그의 열정과 헌신은 구호 팀의 젊은 사람들도 놀랄 정도였다.

산더미 같은 쓰레기와 병균이 사라지다

우리 협회의 노란 조끼를 입은 중장비 기사들이 청소 작업을 계속하자 쓰레기더미들이 점점 사라져 마을은 훨씬 깨끗해지고 분위기가 밝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시라사(SIRASA) TV(스리랑카 최대 민영방송) 기자의 눈에 띄게 되어 방송국에서 동수들을 인터뷰하고 취재해 갔다.

해일 발생 후, 세계보건기구(WHO)는 피해 지역에 장티푸스, 말라리아, 콜레라 등의 전염병 확산이 우려된다는 경고를 했다. 전염병을 통한 2차 재난을 막기 위해 동수들은 고급 연막 방역기 2대를 한국에서 가져왔고, 현지에서 방역기사를 고용해 방역 활동을 펼쳤다.

19일 오후, 우리가 가져온 구호 물품을 마타라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기증식이 있었다. 기증식에서 가자디라 차관은 "여러분이 가져 온 의약

◀ 해일로 무너된 가옥들을 청소하다.

품 중에는 매우 비싼 약품과 스리랑카에서는 구할 수 없는 약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타라 보건국에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방역기가 없는 마타라에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소중한 장비를 제공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청소 작업과 어린이들을 위해 오락 프로그램을 열어준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1월 20일, 구호 팀은 해일 피해자들이 수용된 토타무네(Thotamuna) 마을의 자야마하(Jayamaha) 사원을 방문해 오락 프로그램과 선물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어린이 프로그램 일정이 갑작스럽게 잡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 선물과 공연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신의 은총으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진행되다.

동수들이 사원에 도착하자 전기가 없어 어두운 사원의 커다란 홀에 3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가득 차 있었다. 이전에 했던 프로그램이 알려진 덕분에 공연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금방 고조되었다. 어린이들은 슬픔을 잠시 잊고 큰 소리로 환호했다. 어린이들의 부모는 사원의 창문 너머로 공연을 지켜보며 어린이들의 기쁨에 찬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기뻐했다. 행사가 끝난 뒤, 동수들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 주었다. 이 감동적인 행사를 지켜본 절의 주지스님은 "우리를 찾아와 도와준 단체는 여러분이 처음입니다.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선물을 주고 아이들을 웃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들도 아이들도 너무나 즐거워하며 행복해했습니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구호 팀의 활동은 마타라에 널리 알려져 구호 팀의 스리랑카인 통역사가 시내에 나가면 사람들은 그에게 "우리는 그들과 말이 안 통하니 그들의 모든 봉사에 고맙다는 말을 대신 전해주세요."라고 했다.

이재민들에게 텐트를 쳐 주다

21일 아침 구조대원들은 한 불교사원의 부속 유치원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나눠 주고 정신적·정서적인 위로를 전해 준 후, 집이 완전히 부서진 해안가 마을의 해일 피해자들에게 텐트를 설치해 주었다. 이재민

마을 주민들과 마타라 보건국에게 의약품과 방역기계를 전달하는 기증행사.

▲ 구호 팀이 유치원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들은 임시 수용소의 오랜 단체 생활로 텐트와 조리용 곤로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했다. 따라서 텐트를 지급받은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뻐했다. 구호 팀은 이재민들을 위해 콜롬보에 조리용 화로도 서둘러 주문했다.

24일 드디어 이재민들을 위한 조리용 화로가 도착했다. 동수들은 25일부터 이틀 동안 마타라의 6개 지역을 돌며 조리용 화로 350개와 의류, 과자를 나눠 주었고 사원의 재건축을 위해 금전적인 기부를 했다.

당초 계획은 구호 활동을 25일에 끝내는 것이었지만 여섯 명의 동수가 스리랑카에 계속 남아 구호 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팀에 강한 소속감을 느낀 가자디라 차관도 이 구호 팀에 합류했다. 그는 나중에 명상에 대해 물었고 방편법을 배우고 싶어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여러분의 스승은 존경스럽고 믿을 수 있는 분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동수들은 그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방편법을 가르쳐 주기로 약속했다.

스리랑카 동부 지역에 스승님의 사랑이 닿다

마타라 외에도 구호 팀은 스리랑카의 동부에 위치한 암파라(Ampara)도 방문했다. 스리랑카 주민의 대부분이 불교도인 싱하라족인 반면, 동부지역의 소수민족인 타밀족은 대부분 이슬람교인이라서 두 민족은 오랫동안 내전을 벌이고 있었다. 때문에 암파라에서만 해일로 만 명이 사망하고 2만 가구 이상이 집을 잃었는데도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동부의 이재민들은 구호 물품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구호 팀은 245개의 주방용품 세트를 구입한 뒤, 가자디라 차관과 그의 수행원들과 함께 암파라 지역으로 떠났다.

해일 이후 정부 통제에 의해 스리랑카 동부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방문이나 개인적인 여행은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동행한 스리랑카 공무원들의 도움으로 구호 팀은 안전하게 동부 지역을 방문할 수 있었다.

암파라의 상황은 마타라보다 훨씬 열악한 상태로, 해일 피해자들을 위한 임시수용소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채였다. 그래서 30일 아침부터 구호 팀은 피난민들을 위해 텐트를 설치해 준 뒤 주택건설부를 찾아가 의약품, 텐트 그리

▲ 잔해를 치우고 땅을 고른 뒤 피해자들을 위해 텐트를 치는 모습.

▶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가져다 주다.

고 위에서 언급한 주방용품 세트를 전달했다. 페리알 아쉬로프 장관은 구호 팀을 따뜻하게 환영했다.

동수들은 칼무네 지역의 이슬라마바드와 마르도무네에서 이재민들을 위해 텐트를 세웠다. 그런 뒤 이재민들이 수용된 학교와 이슬람 사원 등 여러 수용소를 방문하여 텐트, 주방용품, 과자, 약품, 우비와 기타 구호 물품들을 나누어 주었다.

31일, 마타라로 돌아온 동수들은 며칠 동안 마타라 교육청과 학교, 임시 이재민 수용소 등지에 여러 다양한 구호물자를 나누어 주었다.

또한 구호 팀은 임시 이재민 수용소에서 '럭키'라고 불리는 4개월 된 남자아기를 만났다. 이 아기는 해일에 휩쓸려가다 구조된 뒤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재난의 충격 때문에 그 아기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경기를 일으켰지만 동수들을 만났을 때는 울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동수들이 안아주자 활짝 웃기까지 했다!

2월 2일, 동수들은 난청을 앓는 8세 어린이가 해일로 보청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수들이 그 어린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자 그 병원 직원들은 우리 유니폼에 인쇄된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를 바로 알아보았다. 왜냐하면 이 병원이 얼마 전 포모시 구호 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병원의 의사는 이 어린이에게 새 보청기가 필요하다고 진단했고 이에 동수들이 보청기를 사 주자 그 소년은 깊이 감동한 나머지 구호 팀에게 큰 절을 했다.

2월 3일, 구호 팀은 대부분의 교실이 파괴된 위안와타(Uyanwaththa)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나눠준 후 동수들은 학생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임시 교실을 지을 수 있는 기금을 전달했다.

무한한 빛으로 언어의 장벽을 넘다

2월 6일 밤, 구호 팀의 첫 번째 방편 전수가 이루어졌다. 통역을 담당해 온 사만타(Samantha)가 최초로 방편을 배운 것이다. 이전부터 주택건설부의 가자디라 차관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방편법을 배우고 싶어했지만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동수들은 그들에게 방편법을 가르칠 수 없었다. 그러나 통역인이 방편을 배운 덕분에 가자디라 차관과 그의 보좌관을 포함해 다른 네 명도 방편법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

2월 7일 구호 팀은 동부 지역에서의 2차 구호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콜롬보로 돌아왔고, 동수들은 콜롬보에서 많은 현지 주민들에게 방편법을 전수했다. 새로운 방편자들은 구호 팀이 구호 물품을 구입하고 포장하는 작업에 큰 힘을 보태 주었다. 그 뒤 동수들은 암파라를 다시 방문해 1,070세트의 주방용품과 구호 물품을 칼무네 전역에 걸쳐 나눠 주었다.

동수들의 구호 활동이 계속되는 동안 그 신실한 헌신에 감동받은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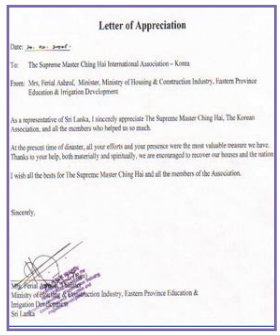
▲자국민을 대신하여 페리알 아쉬로프 장관이 한국 구호 팀으로부터 구호 물품을 전달받다.

▲마타라의 학생들에게 선물세트를 나눠주다.

▲ 새 보청기를 받고 기뻐하는 소년.

이 현지 주민들이 방편 명상법을 배우고 싶어했으며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했다. 또한 구호 팀의 활동이 텔레비전, 라디오 등 많은 매체를 통해 널리 보도되어 많은 스리랑카 사람들이 동시에 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었다. 일례로, 주택건설부의 가자디라 차관의 전 가족이 방편법을 배웠는데 명상하면서 아주 좋은 체험을 해 친척과 친구들에게 방편법을 배우도록 적극 권했다. 이 외 방편법 수행을 통해 영성의 감로수를 맛본 새 방편 수행자들 중에는 완전 입문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도 생겼다.

구호 팀이 스리랑카에 도착한 날부터 3월 초에 이르기까지 수십 명의 마타라 주민이 방편수행자가 되었다. 그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집을 명상센터로 제공해 새로운 사저와 사형들은 함께 모여 매주 스승님의 비디오를 시청하고 단체 명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빛의 나라라는 이름인 스리랑카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찬란히 빛나게 되었다!



Letter of Appreciation

Date: [illegible]

To: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 Korea

From: Mrs. Ferial Ashraf, Minister, Ministry of Housing & Construction Industry, Eastern Province Education & Irrigation Development

As a representative of Sri Lanka, I sincerely appreciate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The Korean Association, and all the members who helped us so much.

At the present time of disaster, all your efforts and your presence were the most valuable treasure we have. Thanks to your help, both materially and spiritually, we are encouraged to recover our houses and the nation.

I wish all the beats for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and all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Sincerely,

Mrs. Ferial Ashraf, Minister
Ministry of Housing & Construction Industry, Eastern Province Education & Irrigation Development
Sri Lanka

페리알 아쉬로프 스리랑카 주택 건설부 장관의 감사 편지

CHANDRASIRI GAJADEERA (M.P)
Deputy Minister

Ministry of Housing & Construction Industry, Eastern Province Education & Irrigation Development

07th February 2005.

MR. JO MYON-HEA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KOREA

Dear Sir,

TSUNAMI RELIEF PROGRAMME – MATARA

Matara is one of the worst cities badly affected by Tsunami where you have come for assistance with your team and you have done a tremendous task by clearing the debris and helping the victims by distributing essential dry rations-medicine, temporary shelters set, and giving them financial assistance also. It is also appreciated your leadership during this short period.

People of Matara will never forget you for ever and may I thank you and your team,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and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coming forward and assist us in this disaster.

Thanking You,

Your's sincerely

Hon. Chandrasiri Gajadeera M.P.
Deputy Minister of Housing & Construction Industries,
Eastern Province Education & Irrigation Development.

찬드라시리 가자디라 주택 건설부 차관의 감사 편지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다

2005년 스리랑카 해일 구호 작업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한국 구호 팀의 첫 해외 구호 활동이었다. 이번 구호 팀에 참가한 동수들은 준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받음으로써 이번 활동이 매우 성공적이었음을 입증했다. 이번 구호 활동은 물질적 도움만 제공했던 게 아니었다. 가는 곳마다 모든 면에서 스승님의 사랑과 빛을 함께 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일 피해자들은 물질적, 정서적 도움으로 재난을 극복하고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위 행사의 주요 내용은
CTI TV 오락채널 '예술과 영성 제136집' 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 중국어 자막)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hichannel/index.htm

(원문 영어)
2005. 3. 12.

사랑하는 칭하이 무상사님께

스리랑카의 입문자들은 스승님의 심오한 사랑과 축복에 힘입은 관음 가족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준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소한 15번의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30피트의 해일은 스리랑카의 해안을 황폐화시켰고 2004년 휴가철은 대규모의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이 최악의 자연 재해가 일어난 다음 날 14명의 포모사 동수들팀이 처음으로 스리랑카에 도착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센터 소속의 스리랑카 사저가 포모사 팀의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신속하게 스리랑카로 달려와 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후 스웨덴 동수인 그녀의 남편도 구호 작업에 합류했습니다.

구호 팀은 희생자를 구조하고 음식을 제공하며 옷, 매트리스, 들것, 의약품, 의료장비, 냉장고, 여성용 위생용품과 속옷, 어린이들의 장난감, 식수, 모기장, 모기향 등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친밀한 조화 속에서 일하며 서로를 성심껏 지원하고 동료애와 아낌없는 협력 정신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동수들은 희생자들을 위로해 줄 필수품과 함께 스승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며 마치 자신의 혈육이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구호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2005년 1월 15일 포모사 팀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나자, 스님을 비롯한 31명의 한국 구호 팀이 의료장비와 값비싼 약품 등의 구호품을 가지고 스리랑카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구호 팀은 서둘러 남부 주요도시인 마타라로 향해 환경 복구 및 구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페이알 아쉬로프 주택 건설부 장관과 찬드라시리 가자디라 차관이 한국 팀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구호 팀의 도착 관련 소식들은 여러 스리랑카 TV채널을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은 한국 구호 팀의 헌신에 감동을 받고 칭하이 무상사와 관음법문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가자디라 건설부차관과 가족은 방편법을 배웠습니다.

포모사와 한국 구호 팀의 활동은 물질적·정서적인 도움뿐 아니라 희생자들에게 스승님의 사랑과 빛도 전해 주었습니다. 구호 활동 동안에 십여 명이 방편법을 배웠고 그 중 몇 명은 완전 입문을 신청했습니다.

희생자들을 돕는 것 외에도 구호 팀은 많은 스승님의 카세트테이프와 DVD를 기증하여 스리랑카 센터를 고양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즉각 깨닫는 열쇠』 시리즈가 스리랑카 입문자들과 스리랑카인들을 위해 싱하라어로 출판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스리랑카의 동수들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신 스승님께 가슴에서 우러나온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중생 제도라는 사명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스승님의 발 밑에 큰 절을 올립니다.

스리랑카 동수들 올림

스리랑카 데일리뉴스 2005년 2월 10일 목요일

(원문 영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한국 회원들이 주택건설부 찬드라시리 가자디라 차관과 함께 마타라와 암파라에서 구호 활동을 전개하며 칼무나이와 마타라의 쓰나미 피해자들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 취사도구, 의약품, 텐트, 분유를 지원했다. 사진은 암파라를 방문했을 때 한국 구호 팀 리더가 주택 건설 및 동부 지역 교육 · 관개 계발 장관인 페리알 아쉬로프 여사에게 희생자들을 위한 물품을 전달하는 모습이다.

아쉬로프 A.사마드(Ashraff A. Samad)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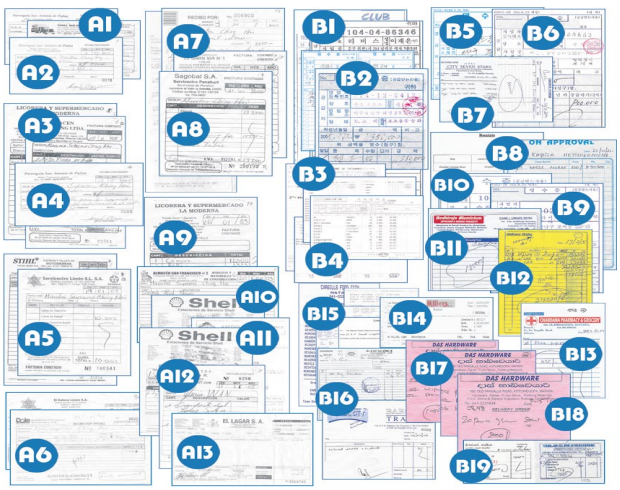
LOCAL NEWS
Daily News

he Surpre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 working with the Deputy Minister of Housing Chandrasiri Gajadeera, in Matara and Ampara launched a relief operation to assist people in Kalmunai and Matara and distributed dry rations, utensils, medicine, tents, infant milk they brought from Korea. Here the Korean team under hands a consignment of items for tsunami victims, to the Minister of Hous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Eastern Province Education and Irrigation Development Ferial Ashraff, during their visit to Ampara.

Picture by Ashraff A Samad

코스타리카와 스리랑카 구호 활동 내역

나라	재난 사유	지출 내역	금액	부록
코스타리카	홍수	식품 (쌀, 콩, 스파게티, 양념, 과일, 야채, 잼, 과자,식수), 일용품, 담요, 전기 톱, 선외 모터, 카메라, 고무장화, 벌채용 칼, 컨테이너 대여, 후원금, 운송비, 기타 잡비	18,883,581.00콜론 (미화 약 41,064.31달러)	A1~A13
스리랑카	쓰나미	식품 (과자, 라면), 옷, 의료용품, 요리기구(냄비, 밥솥, 휴대용 가스버너, 식기류), 장난감, 텐트, 방역기 및 방역도구, 비옷, 문구류, 보청기, 팩스, 불도저 임대, 복구 작업 도구(방진 마스크, 장갑, 삽, 손수레, 모자), 비누, 포장비, 경서 출판비, 성금, 교통비, 기타 비용	12,060,980원 +1,877,359.00루피 (미화 약 31,350.21달러)	B1~B19
		총 액	미화 72,414.52달러	



2004년 인도양에 쓰나미가 발생하자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수행자들은 즉시 피해지역인 남아시아에 도착해 구호 활동과 스승님의 사랑을 전달했다. 위 활동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 제 124, 125, 126편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2005년 1월에서 2월까지 포모사 내 사랑의 활동 지출 일람표
표 1과 표 2 합계: NT$386,906(미화 약 12,302.26달러)

표 1: 2005년 1월에서 2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자선 활동 명세표

(단위: 대만 달러 NT)

지 역	날 짜	활동 내역	금 액	부 록
타이베이	2005. 1. 14	타이베이 완화 복지 봉사센터를 통해 타이베이 지구 노숙자들을 위한 겨울옷과 화장실용품 전달, 또한 노숙자들에게 직접 도시락과 겨울 옷, 위생용품 전달	95,171	A
미아오리	2005. 1. 16	시후 향공소의 환경 보호 활동 노력에 동참, 미아오리 28번 국도 청소 활동	730	B
타이베이	2005. 1. 22	타이베이 완화 지구 독거노인들에게 음식과 성금 전달	38,290	C
핑둥	2005. 1. 23	핑둥 완루안 향 신츠 촌의 극빈 노인들에게 새해 성금 전달	12,350	D
타이난	2005. 1. 26	타이난 밍더 개방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전수 (동수 지원)	0	
타이난	2005. 1. 27	타이난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전수 (동수 지원)	0	
타이베이	2005. 1. 28	타이베이 아이웨이 요양원 방문, 심신지체 장애우들을 위해 성인용 기저귀와 학습용 중고 컴퓨터 전달	8,000	E
미아오리	2005. 1. 29	미아오리 시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겨울옷과 식품, 화장실용품 전달	19,420	F
미아오리	2005. 1. 30	시후 향 미아오리 현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옷과 음식, 성금 전달	18,740	G
타이난	2005. 1. 30	바이허 재향 군인의 집, 옌수이의 주푸 노인시설, 신잉 시 타이즈궁 양로원, 신잉 시 신더츠하 장애 학교와 신잉 병원 부설 요양원 등 타이난 시와 타이난 현의 극빈 노인들과 장애우들을 방문해 음력 설 위로금 전달, 영성 세미나와 채식 시식회 개최 및 오락 프로그램 진행	71,300	H
진먼	2005. 2. 21	진먼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전수 (동수 지원)		
진먼	2005. 2. 21	진먼 현이 개최한 '등 축제'에 참가,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칭하이 무상사의 만세등과 다른 예술작품 전시, 영성 세미나 개최 및 방편법 전수	20,905	I
		총 액	NT$284,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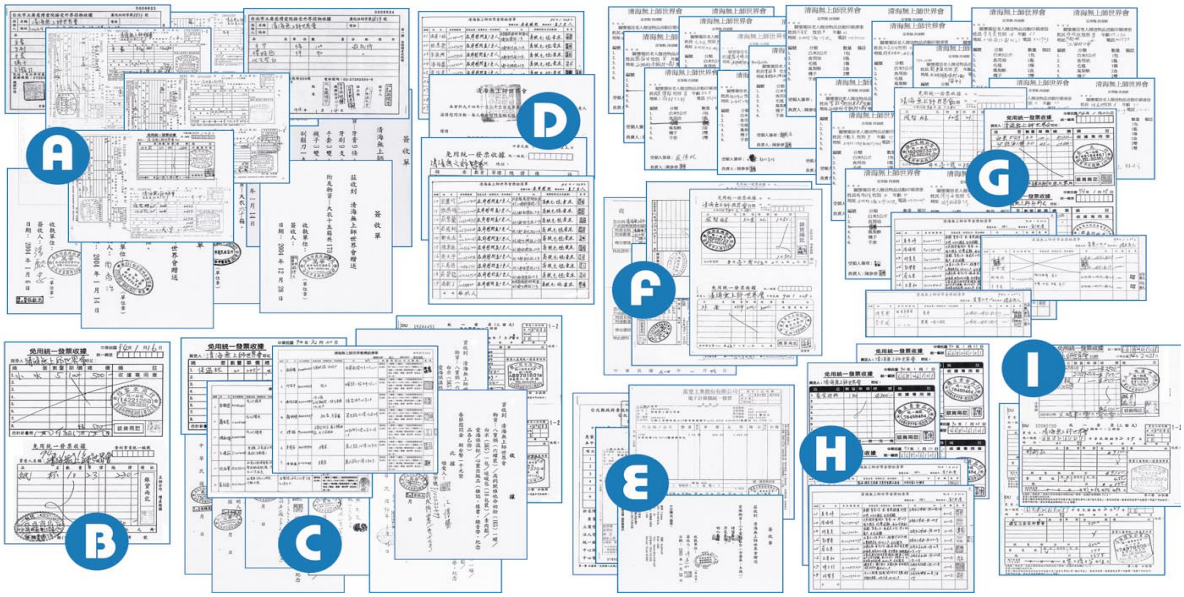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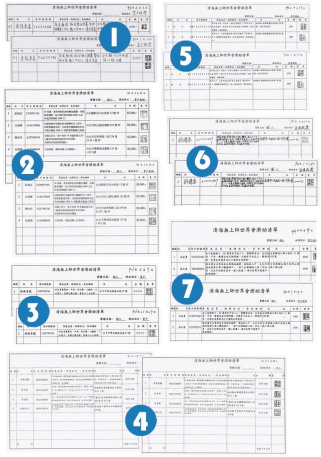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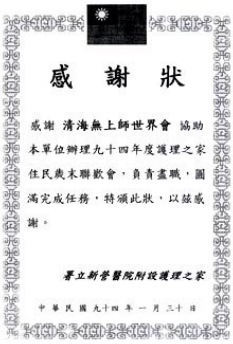


표 1: 2005년 1월에서 2월까지 포모사 내 극빈가정 돕기 지출 명세표

(단위: 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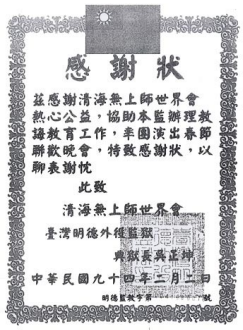
	2005년 1월		2005년 2월		
지역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부록
지룽	1	2,000	1	2,000	1
타이베이	4	10,000	4	10,000	2
타이중	1	3,000	1	3,000	3
난토우	6	21,000	6	21,000	4
가오슝	1	4,000	1	4,000	5
타이둥	2	8,000	2	8,000	6
펑후	1	3,000	1	3,000	7
월별소계	16	$51,000	16	$51,000	





타이난 현 신잉 병원 부설 요양원에서 보내 온 감사장.

노숙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감사하는 미아오리 시장의 감사장.



타이난 밍더 개방 교도소장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재소자들을 위한 교육과 상담활동에 대해 감사하며 보내 온 감사장.

지구 한쪽 끝에서 온 저희는 이곳 지리도 모릅니다. 다리가 무너지고 폭우가 쏟아지며 하늘은 달도 별도 없이 칠흑같이 어두워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길도 미끄러운데도 스승님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저희에게 올 수 있도록 안배해 주셨습니다.

스승님,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 주십시오

홍응고 사형/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원문 어울락어)

최근 나는 로스엔젤레스 센터의 두 사형과 함께 코스타리카 홍수 재해 구호 활동에 참여했다. 이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중 한 사람은 내적 체험을 했는데, 비전에서 도로는 홍수로 작은 강처럼 물이 넘치고 그 강에선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으며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구호 팀의 다른 한 사람도 눈부시게 빛나는 무지개와 원주민들을 보는 체험을 했다. 그는 "충분히 받았습니까?"라고 묻는 소리도 들었다.

며칠이 지나 2005년 1월 15일 우리는 락사 항공사의 제트기를 타고 우리는 코스타리카로 날아가 그 지역 동수들과 함께 40여 년 만의 최악의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구호 활동을 펼쳤다.

코스타리카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구호 활동을 위한 물품들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2천 꾸러미가 넘는 구호품이 준비되자 트럭에 물품을 싣고 코스타리카 센터를 떠나 폭우를 뚫고 리몬 시로 향했다. 푸른 가로수들은 교회의 첨탑처럼 서로 맞닿아 있었고 산비탈을 타고 쏟아지는 폭포수가 거대한 우산 모양의 나뭇잎에 떨어졌다. 가끔씩 구름이 낮게 걸린 하늘에 선홍색의 새들이 날아다니고 손바닥만한 파란 나비들이 파닥거리며 날아다니는, 중앙 아메리카의 전형적인 멋진 열대 우림의 경관이 펼쳐졌다.

가능한 빨리 구호품을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임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완수할 것인지를 밤새 고민하는 동안 저 멀리서는 원숭이들의 수다 소리와 새들의 지저귐이 계속해서 들리고 때때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마치 동물들이 정글의 야간학교에 출석한 것 같았다!

그날 밤 우리는 신실하게 기도했다. "사랑하는 스승님, 저희는 이곳 지리도 모르고 이 지역 사람들과 그들의 삶의 방식과 언어에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부디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보내 주세요."

아침 6시, 모든 구호 팀들이 일어나 긴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안전을 책임질 경찰들, 안내를 담당할 지역 목사를 비롯해 모두들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음 목적지인 식사올라에 도착해 우리 팀은 순조롭게 구호품을 전달했다. 일이 진행되는 동안 비가 그치고 해가 났지만 곧 다시 비가 퍼붓기 시작해 도로의 깊게 패인 부분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변덕스런 날

씨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맡은 바를 계속 진행해 나갔다.

오후 5시, 오랜 시간 일을 하고 나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겨우 구호품의 1/4만이 배분된 것을 알고 걱정이 되어 조용히 스승님께 기도를 드렸다. "스승님, 물품들이 아직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원주민들의 대표자인 둘세리나 파에스 마욜가 여사는 강한 인내심을 보여 주었다. 그녀는 아침 일찍 도착해 차례를 기다려 우리를 만나고선 "어젯밤에 신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구호품들을 실은 두 개의 큰 트럭이 파에스 여사의 원주민 마을로 출발했지만 마을을 잇는 두 개의 다리가 끊어진 상태라 트럭들이 어떻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경찰들도 비가 내려서 마을이 있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너무 미끄럽다며 걱정이 된 나머지 우리에게 구호 작업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스승님께서 구호와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집 잃은 홍수 피해자들을 깊이 염려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에 이런 위태로운 상황을 알고서도 스승님께 최상의 안배를 빌며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밤이 되었지만 비는 계속해서 내렸다. 마지막 차량이 앞서 출발한 구호 호송단에 합류하기 위해 물품 저장고를 떠나려던 때였다. 억수같이 퍼붓는 빗속에서 어디선가 사람들을 가득 실은 트럭이 산에서부터 우리 쪽으로 오는 것이 보였다. "저 사람들은 누구지?"하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바로 산에 사는 원주민들이었다! 그들은 가까스로 길을 만들어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구호품을 기다리게 하고 트럭을 구해서 우리에게 물품을 받으러 온 것이었다.

원주민들을 보자 우리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조용하고 신실하게 스승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스승님, 저희가 어찌 이 어려운 일을 스승님께 부탁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구 한쪽 끝에서 온 저희는 이곳 지리도 모릅니다. 다리가 무너지고 폭우가 쏟아지며 하늘은 달도 별도 없이 칠흑같이 어두워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길도 미끄러운데, 스승님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저희에게 올 수 있도록 안배해 주셨습니다. 원주민들은 9일 간 하루 종일 두어 개의 바나나도 안 되는 식량으로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은 당신의 모든 은총과 영광으로 '스승님, 부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라는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트럭에 구호품을 옮겨 싣고 난 후, 한 동수가 원주민에게 "충분히 받았습니까?"라고 묻자 마을 사람들은 "예, 그래요!"라며 기쁘게 대답했다.

이어서 원주민들과 구호품을 실은 트럭은 신속하게 출발해 앞서 출발한 호송 팀을 따라갔다. 구호품 분배는 완벽하게 끝났다. 우리는 원주민들에게 나눠 준 선물들이 신이 주신 것임을 알고는 그 선물을 전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러웠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한 경찰관은 "재직 기간 27년 동안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를 지원해 줬던 경찰서장은 "저는 이전에 누구에게도 기도한 적이 없었지만 어젯밤에는 스승님께 날씨가 화창해지기를 기도 드렸습니다."라고 말했다. 며칠 동안 끊임없이 내리던 비가 이 날 아침에 그치고 황금빛 아침 햇살이 세상을 비추자 서장은 감동한 나머지 방편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가 LA로 돌아갈 때, 지역 동수들 몇 명이 우리를 배웅해 주었다. 단 며칠을 같이 지냈을 뿐인데도 우리는 친 형제자매 같은 느낌이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따뜻하고 화창한 하늘을 올려다보니 아름다운 쌍 무지개가 지평선에 걸려 있었다. 이 광경을 보면서 그 지역의 한 사형은 "어렸을 때부터 여기 살았지만 오늘같이 아름다운 무지개는 처음 봤어요!"라며 감탄했다.

많은 생명들이 사라져 간 그곳에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났다. 죽음과 탄생, 파괴와 복구, 절망과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희망...

봉순이 이야기

박 소연 사저/ 한국 서울
(원문 한국어)

2005년 1월 나는 영광스럽게도 남아시아 쓰나미 피해자를 돕기 위한 한국 구호 팀의 일원이 되었다.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 도착한 우리 구호 팀은 전염병 발병이 우려되는 피해지역 중 하나인 마타라로 향했다.

무너진 집들 사이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작고 검은 피부의 할머니…

맨손으로 집 앞의 무거운 돌을 치우려고 애쓰는
비쩍 마르고 늙은 노인...

멍한 모습으로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종이를 든
엄마….

엄마를 잃고 눈물조차 말라버린 얼굴의 아이...

표정을 잃은 채 의자와 목표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

마을 주민들과 구호 작업을 하는 동안 나는 마타라에 많은 집 잃은 개들이 무너진 건물들 사이에 터를 잡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돌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는 내가 돌봐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내 음식을 우리 반려동물들과 나누자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신기하다는 듯이 웃으며 서로 소곤거렸다. 며칠이 지나자 몇몇 주민들은 나를 '개의 친구' 라고 부르며 개들이 있는 곳을 알려 주기도 하고 내가 밤에 밖에 나가면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기도 했다. 그리고 사람들도 서서히 떠돌이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했는데, 동물들도 우리처럼 돌봐줘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이해한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곳에서 다른 개들과 달리 유난히 사람의 손길을 그리워하는 개를 만났다. 그 개가 한국의 전형적인 잡종개를 생각나게 해서 나는 '봉순이(한국 코미디 쇼에 나오는 인물)' 라는 착한 이름을 붙여 주었다. 봉순이는 마을을 지날 때마다 항상 나를 따랐는데, 아마도 말을 건네며 쓰다듬어 주어서일 것이다.

봉순이는 임신을 해서 배가 많이 불렀고 쓰다듬어 달라며 눕기도 했다. 곧 출산할 것처럼 보여 나는 또 그 아기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스러웠다.

며칠이 지나고 봉순이는 점점 불러오는 배 때문에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그래도 매일 규칙적으로 숙소로 찾아와 슬픈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내가 구호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올 때마다 기뻐하며 내게 달려오기도 하고 이른 아침부터 숙소 바로 앞에서 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다 언제부터인지 숙소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잠을 자기 시작했다.

스리랑카에서 활동한 지 열흘이 지난 후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고 봉순이의 배도 점점 더 불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봉순이의 양수가 터졌지만 시간이 지나도 새끼들이 나오지 않았다. 봉순이는 움직이지도 않고 숨도 잘 쉬지 못했다. 난 봉순이를 팔에 안고 근처 병원을 샅샅이 찾아다녔다. 그러다 한 병원에서 봉순이를 받아주었고, 나는 병원으로부터 괜찮을 것이란 말을 듣고 겨우 마음을 놓았다.

한 번은 구호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봉순이가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큰 소리로 짖었다. 여느 때와는 달라서 "왜 그래, 봉순아?" 하고 물었지만 봉순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무슨 일 있니?"하고 묻자 봉순이는 나를 무너진 건물로 뒤덮인 초라한 작은 구멍 앞으로 데려갔다.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복구 작업을 시작한 크레인들이 언제 와서 밀어버릴지 몰라 아주 위험한 그곳이 바로 봉순이의 집이었다. 걱정이 된 나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건물 밑에 개가 있으니 밀어버리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들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나는 안심이 되었다.

나는 봉순이의 이빨을 살펴보고는 아직 어리고 한 살쯤 되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아마 이번이 첫 번째 임신일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날 밤 나는 봉순이가 자기가 판 깊고 안전한 구멍 속에서 작은 강아지들을 낳는 꿈을 꾸었다.

한국에서도 동물들에게 해줘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았던 까닭에 나는 봉순이를 두고 돌아와야만 했다. 나는 봉순이가 아주 '조금만' 살다 가게 해달라고 신께 기도했다.

며칠 후 한국으로 돌아온 다른 구호 대원들은 봉순이가 강아지 다섯 마리를 낳았으며 우리가 머물렀던 집 옆에 구멍을 파고 새끼들을 돌보고 있다고 얘기해 주었다. 그건 내 꿈과 꼭 들어맞았다!

많은 생명들이 사라져 간 그곳에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났다. 죽음과 탄생, 파괴와 복구, 절망과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희망...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이다. 나는 그저 신께서 봉순이와 강아지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고통을 줄여 주시기를 기도할 뿐이다. 언젠가는 스리랑카로 돌아가 봉순이를 만날 것이다!

글쓴이 소개: 박 소연 사저는 한국에서 가장 큰 동물 보호 단체인 CARE(동물사랑 실천협회)의 회장이다.

매체 보도

보호 신발을 신게 된 영국의 경찰견들

런던 뉴스그룹 (원문 영어)

2005년 1월, 영국 북부의 노섬브리아 경찰서는 관할 경찰견들에게 특수신발을 신기는 영국 최초의 법집행기관이 되었다. '멍멍 부츠'라는 이 신발은 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개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신발은 세 개의 사이즈가 있고 견고한 깔창과 많은 그립이 있는 신발 바닥 덕택에 어떤 노면에서도 개들이 걸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경찰서 내 공공질서 훈련부서 교관인 PC 알렉스 맥리드는 "우리는 경관들과 함께 네 발 달린 동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길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신발은 도둑이 든 집에서 경찰견이 단서를 찾을 때 도움이 된다. 그런 장소에는 보통 깨진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져 있기 마련인데 이제 경찰견들의 발은 보호신발 덕분에 안전하게 되었다.

위 기사는 최근의 지구 의식이 고양됨으로써 인류애가 동물친구들에게까지 확장되었음을 반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1.northumbria.police.uk/ePolicing/web/wms.nsf/NewsReleaseContentDocs/NWS008691
http://news.bbc.co.uk/1/hi/england/tyne/4187433.stm
http://news.scotsman.com/latest.cfm?id=4020533

과학자들, '동물도 감정이 있다'고 말하다

레프키 파브리디스 사저/ 호주 케언스 하일랜드 센터 (원문 영어)

많은 문화권에서 소는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우유와 다양한 종류의 유제품을 제공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소의 무아의 헌신에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 성스러운 피조물과 다른 동물들이 섬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선 알지 못하고 있다.

영국 브리튼 브리스톨 대학의 동물 복지 연구원인 존 웹스터(John Webster)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 따르면 소와 다른 가축들은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능력이 있으며 심지어 지적인 시험에 대해서도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실험은 돼지, 염소, 닭, 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모든 실험에서 비슷한 행동 양태가 나타났다. 연구원들은 동물들의 감정이 인간과 매우 유사할 수 있으므로 동물 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는 웹스터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물들은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것을 찾기도 합니다. 소와 양들이 인간들처럼 여름 날에 누워서 햇빛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즐기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지요."

브리스톨 연구는 소들이 둘 내지 네 마리씩 무리를 지어 우정을 형성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돌보고 핥아 줌으로써 애정을 표현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반면 싫어하는 감정은 몇 달, 혹은 몇 년까지 품으면서 표현하기도 했다.

내가 시골에서 살면서 이웃의 소들을 관찰해 보니 소떼에서도 우정과 호의, 따돌림, 슬픔들이 종종 발견되곤 했다. 이를테면 무리에서 가장 어리고 작은 놈인 캐러멜은 최근 따돌림과 쫓김을 당하다 무리에서 벗어나 매우 힘들어하곤 했다. 다른 소들이 목장에서 함께 행복하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동안 캐러멜은 외로이 울면서 함께 어울리고 싶다고 애원했다. 다른 소들은 대부분의 경우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 무리에 들어오는 걸 허락해 주었지만 처음에는 꼭 괴롭혔다. 그러나 이제는 캐러멜이 크게 자라자 그를 괴롭히는 일 없이 종종 함께 풀을 뜯어먹곤 한다.

캠브리지 대학의 다른 연구에서는 소가 문을 열고 음식을 찾는 방법을 알아내는 과정 동안 뇌파 측정기(EGG)로 소의 뇌파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다. 이 실험을 통해 소가 음식을 찾으려는 기대감으로 흥분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것은 소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극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브리스톨과 캠브리지의 연구는 농장의 동물들이 마당과 목장을 돌아다니며 하루 종일 풀을 뜯고 먹이만 찾는 수동적이며 감정이 없는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와 유사한 감정적인 특성을 지닌 복합적인 존재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자비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중생들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야 논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해결 방안은 채식을 하

는 것이다. 칭하이 무상사의 말씀처럼 말이다. **"고기에는 동물이 죽을 때의 증오심과 고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과 윤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스스로를 보호하고, 우리의 자비심을 키우며 깨달은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가장 좋은 길은 채식하는 것입니다."**(비디오테이프 No. 344 '신을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에서 발췌)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을 참조하세요.
http://www.all- creatures.org/adow/cam-ff-20050228.html
http://www.sentientbeings.org/science_grudges.htm
http://www.ciwf.org.uk/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영어 + 22개 국어 자막: 새로운 자막이 추가된 재판〉

696 몸과 마음을 벗어난 자유

2000. 5. 9.-10. 한국 영동 국제 선육

내용 요약: 마음은 가끔 영혼의 명령을 왜곡해 우리가 실수하게 만들어 우리의 인간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종류의 업이란 무엇인가? 관음으로 업을 없앨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스승님의 화신을 빨리 볼 수 있을까? "여러분은 그저 신의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마치 시집 속의 아름다운 시와 같아요. 여러분 모두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스승님의 말씀처럼 누구나 심각한 성인이 될 필요는 없다. 스승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변화시켜 이 세상에서 더욱 아름답고 즐겁게 살라고 격려하신다.

〈영어 + 네팔어 통역 + 23개 국어 자막: 새로운 자막이 추가된 재판〉

689 깨달음과 무지

2000. 5. 1. 네팔 카트만두 강연

내용 요약: 깨달음과 무지 사이에는 머리카락 한 올의 차이이긴 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지를 넘어 깨달음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깨닫기 전에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의한 고통은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인가? 많은 문화에서 무수한 언어로 신을 묘사하는데, 신은 어떤 언어로 말씀하시는가? 요가란 무엇인가? 왜 관음법문도 요가라고 하시는가? 관음법문과 영력 치료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개의 사랑과 지능

린 맥기 사저/ 미국 오하이오 (원문 영어)

오래 전부터 개는 충직하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제는 개의 지능도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인류의 진화를 연구하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Max Planck Institute)의 생물학자 율리아 피셔(Julia Fischer)는 리코라는 이름의 9살 된 콜리견을 관찰한 결과 200개 이상의 단어를 이해하고 어린아이만큼 빨리 새로운 단어를 배운다는 것을 발견했다.

기존에 알고 있는 장난감들 사이에서 새로운 인형을 찾아내는 실험을 하자 리코는 이름만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을 보여 주었다. 리코의 주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을 대고 새로운 물건을 가져오게 하자 리코는 10번 중 7번이나 정확히 새로운 장난감을 구별하였다. 리코는 또한 지난 실험에서 보고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장난감을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여섯 번 중 세 번 꼴로 기억해냈다. "개가 한 번만에 그렇게 빨리 배우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사이언스』지의 생명과학 부편집장인 카트리나 케너(Katrina Kelner)는 말한다.

그렇다면 개들이 그렇게 빨리 배운다는 것이 정말로 놀랄 만한 일인가, 아니면 리코의 연구에서 사용된 단어 인지기법이 인간의 지능측정 도구들보다 더 단순한 것일까? 종합해서 말하자면 지능은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이성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로 정의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정의에 따르면 개는 지능에 따라 매일 많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개는 인간보다 10만 배나 후각이 예민하며 이 후각으로 실종된 사람을 찾고 재난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며 땅속에 묻힌 지뢰를 찾아 제거하는 등 수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한다. 심지어 후각으로 사람의 신체적 화학 변화를 알아내기도 한다. 또한 개의 빠른 상황 판단 능력은 위기 상황에서 빠르고 적절히 대응해 앞으로 닥칠 위험이나 신체의 부상 등을 주인에게 미리 알려주기도 한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다큐멘터리 '개들의 직업'에서는 개의 지능이 이런 방식을 통해 종종 인간의 지성을 보완해 주는 많은 예들을 보여준다. 그 중 체코 세퍼드 베라와 주인 마니트가 캄보디아에서 지뢰를 제거하던 일을 했던 이야기를 살펴보면, 베라는 뛰어난 후각을 이용해 수십 년 된 지뢰에서 나오는 아주 적은 양의 가스를 감지하여 지뢰를 찾아내는 훈련을 받았다. 지뢰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은 위험할 뿐 아니라 다른 금속 조각에서 나오는 냄새들과 구분해야 하므로 더욱 더 어려운 일인데도 베라와 마니트는 지역 주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

하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

개의 지능에 관한 다른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은 4살 된 암컷 로트와일러인 페이스이다. 페이스는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해 주인인 리나의 생명을 구했다. 훈련받은 봉사견인 페이스는 리나에게 곧 발작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 대처할 시간을 벌도록 한다. 어느 날 리나가 부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페이스는 주저없이 누구보다 빨리 대처했다. 코를 이용해 수화기를 내려놓고, 단축버튼을 이용해 911을 누른 다음 수화기에 대고 다급하게 짖어댄 것이다. 그리고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알아보는 훈련을 받았던 페이스는 경찰들이 리나를 구하러 오자 즉시 이빨로 문을 열어 줌으로써 리나가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http://espn.go.com/outdoors/sportingdogs/news/2004/1102/1914832.html)

캐나다 퀘벡의 말콤이라는 개 또한 매우 놀라운 지능을 가지고 있다. 말콤은 당초 맹인견으로 훈련되었지만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그의 열정이 맹인견에게 필요한 차분한 기질과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하지만 말콤의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말콤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도록 도와주었고 말콤은 화재 발생 지점을 조사하게 되었다. 이제 그는 퀘벡의 유일한 방화견으로 방화수사에 필요한 정밀한 도구, 코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받게 되었다! 그의 임무에는 백만 분의 일이라는 소량의 냄새를 감지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물이 가득 찬 수영장에서 한 방울의 휘발유를 찾는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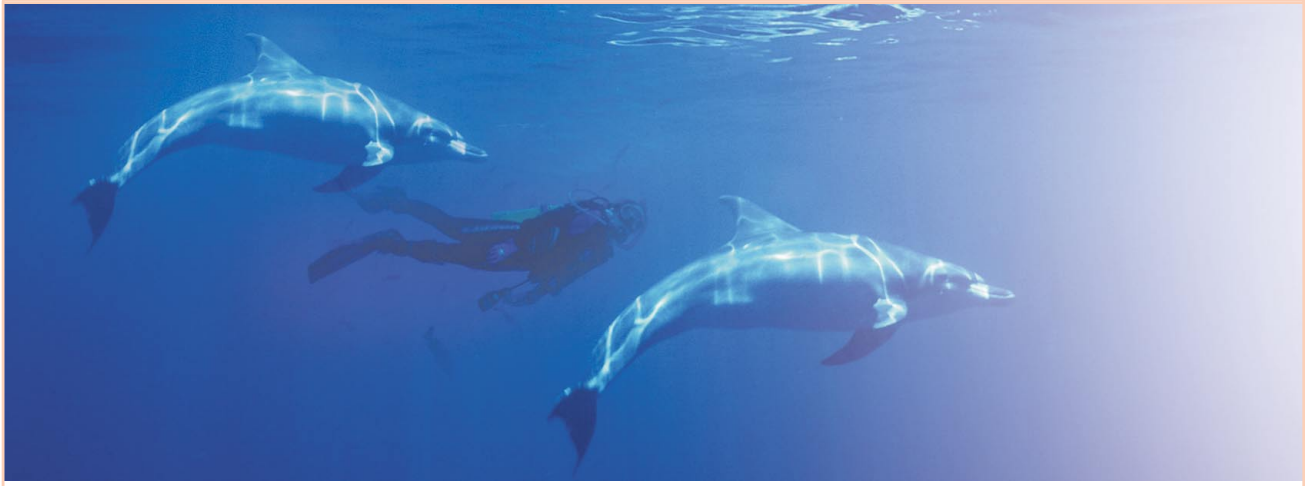
이러한 놀라운 예와 더불어 영국 과학자들은 최근 연구를 통해 개가 후각으로 암을 감지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방광암을 앓고 있는 환자의 소변을 건강한 사람이나 다른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소변과 함께 두었을 때 그 시험대상인 개, 평범한 가정용 애완견조차 암환자의 소변을 구별할 수 있었다. 이는 암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경우보다 세배나 높은 확률이다.(http://www.technovelgy.com/ct/Science-Fiction-News.asp?NewsNum=217)

말콤과 같은 개들에게는 일이 즐거움이다.

개의 후각은 인간보다 최고 10만 배까지 더 예민하다. 그러므로 개가 감지하고 대처하는 방식은 종종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다. 칭하이 무상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다. **"개는 인간과 똑같은 살아있는 피조물입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좀 더 많은 직관과 더 예리한 능력들이 주어졌습니다. 동물들의 눈을 본다면 그들이 우리와 같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아주 영리하기 때문이지요.그들에겐 지능이 있지만 우리처럼 복잡한 두뇌는 필요 없습니다."**(DVD No. 712 '동물들의 신성한 지성'에서 발췌) 이런 많은 행동들은 영적인 무아의 봉사정신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개들의 영성이 순수하고 사랑이 넘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해야 할 것이다.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bordercollierescue.org/news_and_views/Content/Rico.html
http://abc.net.au/science/news/health/HealthRepublish_1129608.htm
http://www.dogswithjobs.com/about_dogs/about.htm



상어의 공격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한 돌고래

(원문 영어)

[뉴질랜드 웰링턴] 최근 뉴질랜드 북부 해안에서는 한 무리의 돌고래들이 수영하던 사람들을 거대한 백상어의 공격으로부터 구한 일이 있었다.

2004년 10월 30일, 인명구조요원 로브 하워스(Rob Howes) 씨는 자신의 15살 된 딸 니시와 딸의 두 친구들을 데리고 왕가레이(Wangarei) 부근 바닷가로 수영을 하러 갔다. "갑자기 어디선가 돌고래들이 나타나 우리를 가운데로 몰았어요. 우리 네 사람을 한데 몰아놓고는 촘촘하게 에워쌌지요." 하워스 씨는 이어서 자신이 돌고래들의 보호 대열에서 빠져 나가려 하자 좀 더 큰 돌고래 두 마리가 자신을 대열 속으로 밀어 넣었다고 설명했다.

그러고 나서 하워스 씨는 길이 3미터가 넘는 거대한 백상어가 그들 쪽으로 다가오다가 원을 그리며 보호하고 있는 돌고래들에게 쫓겨 다시 멀어져 가는 것을 보았다. 하워스 씨는 "내 옆 바로 2미터 정도까지 바짝 다가 왔었지요. 물이 수정처럼 투명했기 때문에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라고 말하면서 그 순간 돌고래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무리를 형성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14년 간 해양 포유류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잉그리드 비서(Ingrid Visser) 씨는 지역 신문인 '노던 애드버킷'이 기자에게 돌고래가 수영하는 사람을 보호했다는 이야기는 전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상황은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돌고래들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환경 보호단체인 오르카 연구소(Orca Research)에서 일하고 있는 그녀는 돌고래들은 자신과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어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번 돌고래들의 행동이 충분히 납득되는 일이며 이번과 유사한 사건이 전세계에서 보고되었다고 얘기했다. "돌고래들이 수영하는 사람들의 위험을 감지할 수 있어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행동을 취했던 겁니다."

또한 오클랜드 대학의 해양 포유류 연구학자인 로쉘 콘스탄틴(Roshell Constantine) 박사도 돌고래는 보통 상어의 출현에 매우 경계하며 그들의 그런 이타적인 반응은 이랑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돌고래들은 약자를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guardian.co.uk/international/story/0,3604,1357888,00.html?gusrc=rss
http://www.thesun.co.uk/article/0,,2-2004541970,00.html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발휘해

훌륭한 수행자가 되도록 하라

칭하이 무상사/ 2002. 8. 4. 캐나다 토론토 동수들과의 화상회의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46

이번 화상회의에서 센터에 거주하고 있는 한 동수가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들에 대해 잘 잊고 주의하지 않아 센터에서 가끔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었다. 이에 스승님께서는 그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몇 가지 조언을 해주셨다.

우리 모두는 때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야무지지 못하거나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도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면 글을 써서 그의 방문에 붙이고 "다음에는 꼭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 말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세요."라고요. 예를 들어 그가 불 끄는 것을 잊었다면 "다음에는 전기료를 줄일 수 있도록 불을 꺼주세요."라고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알리십시오. "마당을 청소해 주세요."라든가 "당신의 방을 깨끗하게 하세요.", 또는 "항상 입문증을 다세요."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건망증이 너무 심하다면, 아주 쉬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방문에 커다란 메모지를 붙이는 겁니다. "당장 입문증을 달 것!" 그러면 문을 열 때면, 기억이 나서 돌아와 입문증을 셔츠에 단 후 밖에 나갈 것입니다. 잘 잊어버린다면 자기 스스로 기억할 만한 메모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항상 누군가가 지적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사람들과 함께 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과 옳은 방법입니다. 나에게는 한 가지 방법, 옳은 방법만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고, 각자 마음가짐과 습관이 다르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일깨워야 하며,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를 알고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일깨우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른이며 성장했고, 책임감 있는 존재이며 더군다나 훌륭한 수행자입니다. 이것들은 아주 사소한 습관일 뿐이며 여러분은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평판을 나쁘게 만들고 자신을 떨어뜨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보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존경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남들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을 존경할 줄 알고 책임감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해야지, 원하는 것은 뭐든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목록으로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부 사람들에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때로 이런 사소한 문제가 결혼 생활을 파국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직업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가슴 아픈 상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주변에 주의를 기울여 최고급 호텔처럼 깨끗하게 만드십시오. 만약 최고급 호텔이 어떤지 모른다면, 그곳에 들어가 둘러보고 돌아와서 여러분의 집도 그렇게 만드세요. 호텔처럼 장식하라는 게 아닙니다. 집을 아주 깨끗하게 해서 마루 바닥에서도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거지요. 마치 내가 내일 방문하는 것처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대중 박수)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이 사는 곳에 사니까요. 나는 그곳에 있습니다. 내가 거하는 곳에서 나에게 예의를 보이세요. 내 전기료도 절약하고 집을 청결하게 하고, 창문을 닫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유지하세요. 왜냐하면 나의 집이니까요. 여러분의 집이 곧 나의 집입니다. (대중 박수)

청결함은 신의 성품입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신이나 부처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렇게 행하도록 노력하세요. 이를테면 문 앞에 메모를 붙여 자신을 일깨우는 거지요. 내가 전세계나 각 센터, 또는 자기 집에서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주는 해결책은 문에 메모를 해 두고 나가기 전에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약점을 갖고 있든, 예를 들어 평소에 창문 닫는 것을 잊어버려 에어컨이나 난방기기를 소모시켜 전기세가 많이 나오게 한다면 방문 앞에 메모를 해두세요. 그러면 나가기 전에 보고 스스로 확인을 해보겠지요. "내가 창문을 닫았는가?" 또는 "잊지 말고 쓰레기를 밖으로 내놓을 것!" 하고요.

목록을 그곳에 붙여두고 매일 나갈 때마다 해야 할 일들을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것을 했나? 했군. 그러면 두 번째, 창문을 닫았나?" 가서 확인하고 돌아오세요. "확인, 닫았음." 그런 다음, "세 번째, 쓰레기를 내놓았나? 내놓았군, 확인." 그러고 나가면 됩니다. 비록 그 당시에 잊는다 해도 최소한 돌아올 때는 다시 기억날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도 잘 못하고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자신과 모두에게 고약한 냄새와 문제를 안겨주는 것보다는 이 편이 낫습니다. 자신을 경이롭고, 아름다우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완벽한 수행자로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히말라야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요. 좋은 일이지요. 대가족이 있다는 것은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서로를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바깥 사람들은 우리 동수들만큼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우리에겐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족인 것입니다.

지혜어록

도로 젊어지는 법

청하이 무상사/ 1991. 6. 13.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관음을 하면 내부진동이 변하고 새로운 구상이 떠오르며 세포가 변해 새로 거듭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시 젊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명상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구·의가 변화되어 다시 태어난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명상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 고통을 줄이고 세상을 도우려 한다면 명상을 해서 업장을 지워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돕는 법을 압니다.

Quan Yin Web Sites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전세계 인터넷
URL: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이 포털 사이트는 다양한 언어로 된 여러 관음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시켜 줄 뿐 아니라 TV 프로그램 '예술과 영성'과도 24시간 접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각국 언어별 『즉각 깨닫는 열쇠』견본책자와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 전자책/인쇄용 포맷을 다운받고 각 사이트의 온라인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위에 링크된 웹사이트에 접속이 어려운 경우, QuanYin.www@gmail.com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 비디오테이프
이메일: art&spirituality@Godsdirectcontact.org
팩스: 1-413-751-0848 (미국)

SM 경서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9-883-778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LA 센터 경서팀
이메일: la_bookstore@yahoo.com
팩스: 1-951-738-9992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888@hotmail.com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http://www.sm-cj.com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포모사 타이베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 2-8787-3935
팩스: (886) 2-8787-0873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kpt@yahoo.co.kr
전화: 031-772-9250
팩스: 031-772-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houmri21@yahoo.co.kr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천의, SM 보석, 해피요기, 만세등,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전세계 연락처

아프리카

★ 앙골라 센터 244-923-338082 luandacentre@yahoo.com

★ 베닌 센터 229-383-982 smbenin@yahoo.fr

★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센터 226-50-341704 smburkinafaso@yahoo.fr

★ 카메룬
두알라 센터 237-34-37232 smcameroon@hotmail.com

★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센터 243-810583010 blessedcongo@yahoo.fr

★ 가나 센터 233-27-607-528 smghanac@yahoo.com

★ 케냐 센터 254-735564987 sainteartmail@yahoo.co.uk

★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Mr. Eric Razahidah 261-33-1115197 razahidah@hotmail.com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566286 smchmauritius@intnet.mu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ius@intnet.mu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82-570-4437 ghvosloo@mweb.co.za
Ms. Dieketseng Napo 27-83-456-3968 dnapo@siza.co.za

★ 토고
팔리메 센터 228-4-410-948
로메 센터 228-2-222-864 smtogo@yahoo.com
Mr. David Chine 228-2-215-551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backhome25@hotmail.com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7-2039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브라질
벨렘 Mr. Wei Cheng Wu 55-91-2234424 55-91-2746611 belemcenter@yahoo.com.br
고이아니아 Mr. & Mrs. Erwin Madrid 55-62-3941-4510 erwinserrano@terra.com.br
레시페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상파울루 센터 55-11-5904-3083/ 5579-1180 br_center@yahoo.com.br

★ 캐나다
에드먼턴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anh2sd@hotmail.com
런던 센터 1-519-933-7162 unis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vif.com
Ms. Euchariste Pierre 1-514-277-2717 p_euchariste1@sympatico.ca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thehungnguyen@vif.com
오타와 Mr. Tuan Duong 1-613-565-0862 et323@ncf.ca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Ms. Diep Hoa 1-905-828-2279 hoadiep0723@yahoo.com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22@shaw.ca
Ms. Sheila Coodin 1-604-580-4087 qycontactperson@yahoo.ca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nguyen2002@yahoo.com

★ 칠레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 콜롬비아
보고타 Mrs. Blanca Elizabeth Pedraza 57-1-6240217 diachadicha@hotmail.com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401@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멕시칼리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 eternalmaster2002@yahoo.com.mx
멕시코 D.F. 센터 52-55-5752-7472/ 5639-3506 cmpkamelkamel@hotmail.com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center@contactodirectocondios.org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al Suffo 52-8-379-0897 mtycenter@starmedia.com

★ 니카라과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roxanavet@hotmail.com

★ 파나마 센터 507-236-7495
Ms. Maritza E. R. de Leone 507-260-5021 mrleone@hotmail.com

★ 파라과이
아순시온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2-523684 ec_py2002@yahoo.com.ar

★ 페루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centro@yahoo.com
리마 센터 51-1-4716472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edyter@viabcp.com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트루히요 Mr. & Mrs. Ra l Seugra Prado 51-44-221688 rsp_trujillo@hotmail.com

★ 살바도르
산살바도르 Mr. Manuel Menjivar 503-216-9413 quijano_manuel@yahoo.es

★ 트리니다드 섬
Mr. Ray Alibocus 1-868-637-1054 alibocus@tstt.net.tt

★ 미국
애리조나 : 센터 1-602-264-3480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kennyngoaz@hotmail.com
아칸사스 : Mr. Robert Jeffreys 1-479-253-8287 bobedj@cox-internet.com
캘리포니아 :
*로스앤젤레스 센터 1-909-674-7814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lin54@hotmail.com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SanGabriel99@hotmail.com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새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saccenter.ca@usa.com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KHOALUONG@aol.com
*샌프란시스코 센터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fcenter@hotmail.com
*산호세 Ms. Sophie Lapaire 1-650-988-6500 Sophie.lapaire@sun.com
Mr. & Mrs. Edgar Shyuan 1-408-463-0297 Edgar-Teresa@worldnet.att.net
Mr. Loc Petrus 1-510-813-2300 petrusl.2k4@gmail.com
콜로라도 :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torahi@ureach.com
플로리다 :
*케이프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941-458-2639 Thaidbzad@msn.com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tls1095@earthlink.net
*올랜도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ekalbekim@yahoo.com
조지아 : 센터/ Bhiksuni Chan Mo 1-770-936-9926 georgiacenter@hotmail.com
Mr. James Collins 1-770-934-2098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하와이 : 센터 1-808-735-9180 hawaiictr@hotmail.com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DorothySakata@aol.com
일리노이 :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tran@yahoo.com
인디애나 : Mr. & Mrs. Duc Vu 1-317-293-5303 Duchanh@aol.com
켄터키 : 센터 kycenter2000@yahoo.com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uji.Nguyen@ky.gov
루이지애나 :	Mr. John L. Fontenot	1-504-483-3234
		jlfontenot@hotmail.com
메릴랜드 :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marylandcenter@yahoo.com
메사추세츠 :		
*보스턴	센터	1-978-436-9982
		shinemound@earthlink.net
	Ms. Gan Mai-Ky	1-508-791-7316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미시간 :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mading02000@yahoo.com
미네소타 :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mn@yahoo.com
미주리 :		
*제퍼슨	Ms. Mary E. Steck	1-573-761-9969
		MSteck5208@aol.com
*롤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네브라스카 :	Ms. Celine Robertson	1-402-483-4067
		croberts@lps.org
네바다 :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뉴저지 :	센터	1-973-209-1651
		c_newjersey@yahoo.com
	Mr. Chang Sheng Chou	1-973-335-5336
		JohnChou@ymlusa.com
뉴멕시코 :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anawarskas@hotmail.com
뉴욕 :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dong@phys.columbia.edu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716-256-3961
		dcouch@rochester.rr.com
노스캐롤라이나 :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오하이오 :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ohiocenter@yahoo.com
	Mr. Gilbert Rivera	1-937-746-3786
		wisdmeye@aol.com
오클라호마 :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yahoo.com
오리건 :		
*포틀랜드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egon_center90@yahoo.com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youping320@yahoo.com
펜실베이니아 :	Mr. & Mrs. Diep Tam Nguyen	1-610-529-3114
		DiepAshleyPa@aol.com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텍사스 :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jdawu@yahoo.com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ongdean@yahoo.com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Mr. Tim Mecha	1-972-395-0225
		t.mecha@comcast.net
	Mr. Weidong Duan	1-972-517-5807
		water96@yahoo.com
	Mr. Jimmy Nguyen	1-972-206-2042
		JimmyHNguyen@yahoo.com
*휴스턴	센터	1-281-955-5782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damson@houston.rr.com
	Mr. & Mrs. Charles Le Nguyen	1-713-922-1492
		cuc-le@houston.rr.com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obert.yuan@hp.com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2049
		lethong@hotmail.com
버지니아 :	센터	1-703-941-0067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ly@hotmail.com
*버지니아비치	센터	1-757-461-5531
		liem_le23502@yahoo.com
워싱턴 :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aol.com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c@yahoo.com
★ 푸에르토리코		
카뮈	Mrs. Disnalda Hernanadez Morales	1-787-262-1874
		disnalda@caribe.net

＊＊＊아시아＊＊＊

★ 포모사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tpe.light@msa.hinet.net
	Mr. & Mrs. Loh, Shih-Hurng	886-2-2706-2628
		shloh@ndmctsgh.edu.tw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Mr. Chu, Chen Pei	886-37-724726
가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534693
★ 홍콩	센터	852-27495534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joyandlove3@hotmail.com
★ 인도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655-6741
		shiva@cal.vsnl.net.in
★ 인도네시아		
발리	센터	62-361-231-040
		smch_bali@yahoo.com
	Mr. Agus Wibawa	62-81-855-8001
		wibawa001@yahoo.com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smch-jkt@dnet.net.id
	Mr. Tai Eng Chew	62-21-6319061
		cte@envirotec.co.id
	Ms. Lie Ik Chin	62-21-6510715
		herlina@ueii.com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hai@cbn.net.id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ketut@sinarmas.co.id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yudi_wartono@telkom.net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메단	Mrs. Merlinda Sjaifuddin	62-61-4514656
		smch_medan@hotmail.com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ahimsasb@indosat.net.id
	Mr. Harry Limanto Liem	62-31-594-5868
		harry_l@sby.dnet.net.id
욕야카르타	Mr. Madyana Putra Augustinus	62-274-411-701
		t.adianingtyas@lycos.com
★ 이스라엘	Mr. Yaron Adari	972-9-866-6247
		ya05@netvision.net.il
★ 일본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divinalv@mth.biglobe.ne.jp
다테야마	센터	81-470-209127
		tateyama_lg@yahoo.co.jp
도쿄	Ms. Yukiko Sugihara	81-90-6104-5770
		lotus@sky.plala.or.jp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y-plus@f6.dion.ne.jp
★ 한국		
	출판사	031-772-9250
		chinghaiKpt@Yahoo.co.kr
영동	영동 센터	054-532-5821
		houmri1@kornet.net
서울	서울 센터	02-577-2158
		goldenseoul@yahoo.co.kr
	유태인	02-795-3927
부산	부산 센터	051-581-9200
		chinghaibusan@hanmail.net
	송호준	051-957-4552
	황상원	051-805-7283
전주	전주 센터	063-274-7553
		shc5824@hanmail.net
	신현창	063-254-5824
인천	인천 센터	032-579-5351
	이재문	032-244-1250
대구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김익현	053-633-3346
	한선희	053-767-5338
	차재현	053-856-3849
대전	대전 센터	042-625-4801
	김수동	
광주	광주 센터	062-525-7607
	조명대	061-394-6552
		smgwangju@naver.com
안동	안동 센터	054-821-3043
	김삼태	054-821-3043
청옥	청옥 센터	054-673-7353
★ 라오스		
비엔티안	Mr. Somboon Phetphommasouk	856-21-415-262
		somboon_9@hotmail.com
★ 마카오	센터	853-532231
		macau_center@email.com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 말레이시아		
알로르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조호르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supreme2@tm.net.my
콸라룸푸르	센터	603-2145-3904
		klsmch@tm.net.my
	연락인 사무실	6012-259-5290
		klsmch@yahoo.com
페낭	센터	604-2285853
		pgsmch@pd.jaring.my
	Mr. & Mrs. Lim Wah Soon	604-6437017
★ 몽골		
울란바토르	Ms. Erdenechimeg Baasandamba	976-11-310908
		baasandamba@yahoo.com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 네팔		

카트만두	센터	977-1-4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Mr. Ajay Shrestha	977-1-4473-558 ajaystha@hotmail.com
포카라	센터	977-61-28455
	Mr. Bishnu Neupane	977-61-31643 neupanebishnu@hotmail.com
	Mr. Shiva Bastola	977-61-28255
	Mr. Raj Kumar Lama	977-61-31413
★ 필리핀	마닐라 센터	manilach@hotmail.com
★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chinghai@singnet.com.sg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 스리랑카		
콜롬보	Mr. Lawrance Fernando	94-1-412115 samantha.nbt@zeynet.com
★ 태국		
방콕	센터	662-674-2690 bkk_c@hotmail.com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 66-2-5914571 edasnlad@stou.ac.th
치앙마이	Ms. Siriwan Supatrchamnian	66-50-332136 siriwanli@hotmail.com
콘캔	센터	66-43-378112
송크라	센터	66-74-323694

유럽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Chinghai@A1.net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
	Mr. Shih-Tsung Lu	43-699-12272892 sound@gmx.at
★ 벨기에		
브뤼셀	Ms. Ann Goorts	31-6-11-240-115 gotske@yahoo.fr
★ 불가리아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8575358 oldruslan@yahoo.com
플로브디프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iplovdiv@yahoo.com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zeljko@mindless.com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prague-center@chinghai.cz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Chinghai@chinghai.cz
★ 덴마크	Mr. Thanh Nguyen	45-66-190459 my@webspeed.dk
★ 핀란드		
헬싱키	Ms. Anne Nystrom	358-9-793902 anne.nystrom@kolumbus.fi
★ 프랑스		
알사스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arclai@infonie.fr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뽕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
파리	센터	33-1-4300-6282
	Ms. Lancelot Isabelle	33-1-7069-3210 ilancelot@celestialfamily.net
★ 독일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pureocean@web.de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203-4846374 ngoc-thao.nguyen@gmx.de dusseldorfcenter@hotmail.com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뮌헨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aol.com
	Ms. Kang Cheng	49-89-3616347 love_source@t-online.de
★ 그리스		
아테네	Ms. Vicky Chrisikou	30-210-9321920 luckychrisikou@yahoo.gr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m.mannaart@planet.nl
	Mr. Nguyen Ngoc Trung	00-31-626478716 Quan-Am@chello.nl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freemail.hu
	Mr. Lux Tamas	36-304273364
	Ms. Dora Seres	36-1379-1924
기요르	Mr. Lehel Csaba	36-96-456-452 clehel@freemail.hu
★ 아일랜드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dublinquanyin@yahoo.co.uk
★ 노르웨이		
오슬로	Mr. Nguyen Ngoc Tai	47-22-612939 osloqy@online.no
★ 폴란드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zak	48-91-4874953 gingal@wp.pl
바르샤바	Mrs. To Soszynska	48-22-6593897 quanyin_pl@yahoo.com
★ 포르투갈		
레이리아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lcoa_center@hotmail.com
★ 러시아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boulgakov@tri-el.ru
★ 슬로베니아		
루블랴냐	Mr. Janez Pavlovic	386-41-320-268 janez.pavlovic@siol.net
마리보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dbk@siol.net
★ 스페인		
마드리드	Mr. Gabriel Gasca Hemandez	34-91-5930413 Madridcenter@yahoo.es
	Ms. Lidia Kong	34-91-5470366
	Mr. Claudio Octavio Silva Zuniga	34-667090831 claudiosilvachile@yahoo.es
말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Mr. Yu Xi-Qi	34-96-3347061 valenciachinghai@yahoo.es
★ 스웨덴		
엔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Angelholmswe@yahoo.com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sweden1@tele2.se
말뫼	Mr. & Mrs. John Wu	46-40-215688 john.wu@bolina.hsb.se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 스위스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ilo.org
	Ms. Klein Ursula	41-22-3691550 uklein@tiscali.ch
★ 영국		
입스위치	Mr. Shahid Mahmood	44-1473-436961 shahidm@ntlworld.com
런던	센터	pnl@matters19.freeserve.co.uk
	Mr. Nicholas Gardiner	44-2089-773647
	Mrs. C. Y. Man	44-1895-254521 chuk_yee_man@hotmail.com
스토크온트렌트	Mrs. Janet Weller	44-1782-866489 janet.weller7090@ntlworld.com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stmchwo@hotmail.com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오세아니아

★ 호주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ide@hotmail.com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telstra.com
	Mr. Gerry Bisshop	617-3847-1646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telstra.com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dlch136@hotmail.com
바이런베이/ 노던리버스	Mr. & Mrs. Ray Dixon	612-6689-1282 ray_jule@bigpond.net.au
캔버라	Mr. Hoang Khanh	61-2-6259-1993 smcanberra@hotmail.com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rosrobery@aol.com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phongloveme@yahoo.com
	Mr. Alan Khor	61-3-9857-4239 ckhor@bigpond.net.au
퍼스	센터	61-8-9242-1189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inet.net.au
	Mr. Ly Van Tri	61-8-9242-2848
시드니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Mr. Ly An Thanh	61-2-9823-8223 anbinh_sydney@yahoo.com.au
★ 뉴질랜드		
오클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Mr. Peter Morrin	642-172-2776 ptr@ihug.co.nz
	Mr. Chang Jen-Hor	64-9-274-9298 changjenhor@yahoo.com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chsmch@hotmail.com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hamnzcont@yahoo.co.nz
넬슨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588 <영어 + 26개 국어 자막>

스승님의 히말라야 순례기(1,2)

1997. 7. 7.-8.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단체명상

내용 요약: 스승님이 홀로 히말라야를 순례하셨던 당시의 여정과 경험담. 여기에는 갠지즈 강에서 스승님이 목격하셨던 경이로움과 많은 아쉬람을 방문하시는 동안 일어난 놀라운 일들, 많은 기인들과 사건들을 겪으셨던 인도의 신성한 축제 쿰바멜라 기간 동안의 진기한 모험담도 포함되어 있다. 이 외 스승님은 장생불로의 호수를 찾으려 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한 당신의 예를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시련을 이겨내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일러 주신다.

240 <영어 + 22개 국어 자막: 새로운 자막이 추가된 재판>

이 세상을 새 시대로 이끌자

1992. 5. 8./ 4. 10. 포모사 시후 단체명상

내용 요약: 스승님은 우리에게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세상의 지도자로서 사랑과 희생의 모범이 되라고 격려하시는 한편 다음 질문에 대해 답해 주신다. 이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현대 사회보다 더 찬란하게 진보했던 몇몇 고대 문명들은 왜 멸망했는가? UFO는 정말 존재하는가? 왜 다른 행성의 존재들은 공개적으로 지구에 접근하는 것을 꺼려하는가?

671 <영어 + 25개 국어 자막: 새로운 자막이 추가된 재판>

깨닫는다는 것

1999. 11. 21. 이스라엘 텔 아비브 강연

내용 요약: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가 신의 자녀들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는가? 우주에 대한 신의 위대한 계획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모든 인류가 다 깨달을 수 있는가? 깨닫는 순간에 어떤 특별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가? 영력으로 치료를 해선 안 되는 이유는? 무거운 죄책감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왜 스승님은 악마가 사실은 아름답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천사라고 하시는가?

스승님의 출판물을 주문하려면 이곳으로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Taipei, Formosa
Tel: (886) 2-87873935/ Fax: (886) 2-87870873
E-mail: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대만 우체국 송금 계좌 번호: 19259438
수취인: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시집**

영문판 무자시(無子詩), 중문판 재판과 공동 출간

칭하이 무상사의 시는 운율과 언어의 선택, 의미의 함축성이라는 측면에서 독특한 아름다움과 우아함, 미묘함을 가지고 있다. 스승님의 구도 순례기를 보여 주는 『무자시』의 각 구절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절실함과 신실한 맹세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널리 낭송되고 음악으로도 종종 작곡되는 『무자시』를 읽노라면 그 우아하고 세련된 시구에 매혹되고 칭하이 무상사의 강렬하고 무한한 사랑의 열정에 큰 감동을 받게 된다. 또한 '집'으로 돌아가고자 열망하는 구도자들은 온몸을 뒤흔드는 깊은 공감을 느낄 것이다.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CD 736<영어>

인생은 환상의 게임

2002. 5. 11.-13. 미국 플로리다 센터 스승님의 생신 경축 행사

내용 요약: 물질 세계라는 잘못된 거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본성을 지각할 수 있는가? 중생들이 깨달은 스승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스승은 이런 인연을 어떻게 이용해 중생을 제도하는가? 어떻게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가? 깨달은 스승이 때로 수많은 중생으로 화현하는 이유는? 삶의 여정에서 가혹한 시련을 겪게 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이 강연에서 스승님은 이런 질문에 답해 주시고 프랑스에서 불굴의 용기로 용감하게 생활하신 젊은 시절 이야기도 말씀해 주신다.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MP3**

MP3-CL01 <중국어>

주요 내용:

1. 1988. 10. 26.-27. 포모사 지룽 강연
스승님은 어떤 종교도 수행하지 않는다
스승님은 무슨 종교를 수행하시는가?

2. 1998. 11. 15.-16. 포모사 타이중 강연
장생불사는 가능한가?
왜 종교들 사이에 충돌과 모략이 존재하는가?

3. 1988. 11. 17.-18. 포모사 타이베이 강연
고대 이래로 깨달은 스승들이 계속 위험에 처한 이유는?
스승님의 보시법: 나누는 마음